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115호 【루계 제25624호】 주체106(2017)년 4월 25일 (화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사 설

조선인민군은 수령결사옹위군, 혁명적당군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끝없이 빛내여나갈것이다

전당, 전군, 전민이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는 시기에 우리는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85돐을 성대히 경축하고있다.

뜻깊은 건군절을 맞으며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혁명무력건설의 빛나는 본보기를 창조하시고 백전백승의 력사를 수놓아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고있으며 조선인민군을 세계최강의 혁명강군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광을 드리고있다.

우리 당과 국가, 인민에게 있어서 건군절은 매우 의의깊고 소중한 혁명적명절이다. 주체혁명의 개척과 승리적전진의 행로우에도 우리 혁명무력의 불멸의 공적이 새겨져있고 이 땅우에 빛을 뿌리는 사회주의재부들에도 인민군대의 고귀한 피땀이 슴배여있다. 우리 당과 혁명의 력사이자 우리 군대의 력사이며 우리 식 사회주의의 양양한 전도와 인민들의 행복한 미래도 무적필승의 백두산혁명강군에 의해 담보되고있다. 건군절을 전국가적, 전인민적명절로 뜻깊게 경축하는것은 총대와 함께 전진하여온 우리 혁명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5돐경축 열병식은 혁명성과 규률성, 전투력에 있어서 세계 그 어느 나라 군대도 따돌수 없고 위대한 김정은시대에 더욱 승승장구하는 조선인민군의 기상을 뚜렷이 보여준 대서사시적화폭이였다. 위대한 태양의 위업,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총대로 굳건히 수호해나가는 수령결사옹위군, 혁명적당군의 불패의 위용은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우리 인민들에게 승리의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적대세력들에게는 무서운 공포를 안겨주고있다.

지난 85년간 우리 인민군대가 천하제일의 혁명강군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되고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영웅적위훈을 아로새겨올수 있은것은 위대한 수령, 위대한 최고사령관을 대를 이어 높이 모시고 오직 당이 가리키는 한길을 따라 투쟁해왔기때문이다. 수령의 령도, 당과의 혼연일체는 어제와 오늘은 물론 앞으로도 우리 인민군대의 영원한 생명선이며 백전백승의 힘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슬하에서 우리 혁명무력은 혁명적성격이 뚜렷하고 전투적기질과 위력도 더없이 막강한 혁명강군의 위용을 남김없이 떨쳐왔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21(1932)년 4월 25일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신것은 새형의 혁명적무장력, 진정한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의 탄생을 알린 력사적사변이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이 창건됨으로써 민족수난의 력사를 끝장내고 조국땅우에 사회주의강국,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애국, 애족, 애민의 뜻과 위업을 앞장에서 옹위해나가는 용맹 혁명가들의 전투대오가 마련되게 되였으며 이때로부터 총대의 위력으로 전진하는 조선혁명의 영광스러운 력사가 시작되게 되였다.

일찌기 강력한 총대우에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존엄과 번영이 있고 혁명의 승리도 있다는 철리를 밝히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직후 당을 창건하신 다음 지체없이 조선인민혁명군을 정규적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시여 우리 당의 혁명위업을 무력으로 보위할수 있는 튼튼한 담보를 마련하시였다. 인민군대를 간부화, 현대화하고 군민일치를 실현하시였으며 튼튼한 자위적국방공업을 건설하시여 우리 혁명무력을 일당백의 혁명강군으로 키우신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특출한 군건설업적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사회주의위업을 계승완성하는것을 필생의 사명으로 내세우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군 김일성주의화를 군건설의 총적임무로 제시하시고 정력적인 령도로 주체의 혁명적당군건설의 새 력사를 펼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혁명의 가장 준엄한 시련의 시기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인민군대를 최정예전투대오로 강화발전시키시고 전대미문의 사회주의수호전을 련전련승에로 이끄시였으며 우리 나라를 세계적인 군사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우는 거대한 력사적업적을 이룩하시였다.

불세출의 선군령장들을 높이 모시여 우리 인민군대는 창건된 첫날부터 오늘까지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사회의 그 어느 계급, 계층이나 집단도 대신할수 없는 특출한 역할을 수행하여왔다.

백두산혁명강군의 85년 력사는 우리 당과 혁명의 명맥을 굳건히 수호하여온 영광스러운 력사이다.

수령옹위는 당과 혁명의 명맥을 이어나가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이다. 백두밀림에서 추켜든 수령결사옹위의 기치를 년대와 세기를 이어 변함없이 틀어쥐고 천겹만겹의 방탄벽, 무자비한 칼날이 되여 혁명의 수뇌부를 보위한것은 우리 인민군대가 혁명앞에 쌓아올린 공적중의 공적이다. 백두산총대가 있었기에 우리 혁명의 수뇌부를 노리는 제국주의자들과 적대분자들,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을 비롯한 온갖 원쑤들의 악랄하고 비렬한 책동들이 걸음마다 물거품이 되고 당의 로선과 정책들이 언제나 빛나는 현실로 전변되였으며 수령이 이룩한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이 전결히 옹호고수되였다. 혁명위업계승의 력사적전환기들에 백두의 혈통의 순결성을 보장하는데서 인민군대가 세운 자랑스러운 위훈은 주체의 건군사에 뚜렷이 아로새겨져있다.

위대한 선군령장이 이끄는 우리 인민군대는 새 세대 청년들을 당의 믿음직한 계승자들로,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맹장들로 키워내는 세상에 둘도 없는 훌륭한 혁명대학이다. 군사복무의 나날에 단련된 수많은 혁명적군인정신의 소유자들이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부문, 모든 초소마다에서 골간을 이루고있기에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여도 주체혁명의 대가 꿋꿋이 이어지고있는것이다.

백두산혁명강군의 85년 력사는 혁명의 기둥, 주력군이 되여 우리 당의 선군혁명위업, 사회주의위업을 힘있게 전진시켜온 력사이다.

조선혁명은 그 특수성으로 하여 참으로 간고한 길을 걸어왔다.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제국주의자들과 적대세력들의 위협공갈과 제재압박은 혹안무치성과 악착성, 집요성에 있어서 전대미문의것이였다. 우리 혁명이 력사의 온갖 도전과 시련을 과감히 뚫고 승리적으로 전진하여올수 있은것은 수령의 사상과 위업에 무한히 충직한 인민군대의 선봉적, 핵심적역할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우리 혁명무력은 항일대전의 주력이 되여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였으며 준엄한 전화의 나날 대중적영웅주의와 무비의 희생성을 발휘하여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를 때려부시고 혁명의 전위물을 영예롭게 지켜냈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를 받들어 우리 인민군대는 조국사수, 혁명보위의 철벽의 성새로 위훈떨쳤을뿐아니라 당의 부름따라 사회주의건설의 가장 어렵고 힘든 곳마다에서 불가능을 모르는 창조대군의 영웅적기상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주체혁명의 생는길을 앞장에서 헤치며 우리 당의 제일기둥, 억척의 지지점이 되여온 여기에 조선인민군의 크나큰 자랑과 영예가 있다.

력사와 전통은 계승되여야 빛난다. 오늘 대를 이어 수령복, 최고사령관복을 누리는 영웅적조선인민군의 앞길에는 끝없이 밝고 창창한 미래가 펼쳐져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는 비범한 천품과 지칠, 풍모를 최상의 높이에서 가장 완벽하게 체현하고계시는 희세의 천출명장이시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주체적인 군건설사상과 령도업적을 계승발전시켜 인민군대의 전투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함으로써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시려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군력강화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정력적인 령도는 전군을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할데 대한 로선과 전우대, 대학생군대로 만들데 대한 사상, 군력강화의 4대전략적로선과 3대과업을 비롯한 독창적인 사상리론들에도 깃들어있고 끊임없이 찾으시는 조국의 최전방초소들과 포연서린 전투훈련장들, 동음세찬 군수공장들에도 아로새겨져있다. 주체조선의 국방력강화를 위한 경이적인 사변들이 대대단으로, 련발적으로 이룩되고 우리가 적들의 발광적인 침략기도를 걸음마다 짓부시며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영예롭게 지켜낼수 있은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무비의 담력과 배짱, 천리혜안의 예지와 탁월한 령도력의 빛나는 결실이다.

우리 인민군대의 면모가 날로 일신되고 그 전투력이 천백배로 강화되고있는 격동적인 현실은 온 나라 인민들에게 강력한 용대가 굳건히 옹위해나가는 조선로동당의 위업,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의 최후승리는 확정적이라는 신념과 락관을 백배해주고있다.

조선인민군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중심으로 한 우리의 일심단결의 핵심부대이다.

일심단결은 사회주의조선의 불가항력적위력이며 주체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과 완성을 위한 최강의 무기이다. 오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사상과 로선을 절대적으로 신봉하고 당중앙의 권위를 견결히 옹호하며 당이 준 과업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결사관철해나가는 인민군군인들의 고결한 사상정신적풍모는 세인을 경탄시키고있다. 자기 령도자에 대한 인민군대의 절대적인 충정은 당과 대중의 혼연일체의 튼튼한 초석이다. 총대가 전진하기에 혁명의 대가 바뀌여도 령도의 중심이 확고부동하고 단결의 전통이 변함없이 고수되고있으며 제국주의반동들의 악랄한 내부와해책동이 걸음마다 파탄되고있다. 세상에는 인민군대가 수령옹위의 제일근위대, 제일결사대가 되고 군대와 한마음한뜻이 된 전체 근로자들과 청년들이 당중앙의 두리에 천겹만겹의 성새를 이룬 우리의 군민대단결처럼 강력한 단결은 없다.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굳게 믿고 따르는 우리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마음은 그이의 위대한 사상과 특출한 령도력, 뜨거운 인정미에 대한 끝없는 태후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가장 순결한 사상감정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과 함께라면 기쁨도 슬픔도 시련도 영광이며 당중앙을 따라 끝까지 한길을 가려는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인생관이다. 우리의 일심단결은 그 어떤 풍파가 닥쳐온대도 끄떡없으며 그 위력은 무한대이다.

조선인민군은 미제의 반공화국침략책동과 핵위협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고 사회주의조국을 철옹성같이 보위해나가는 믿음직한 수호자이다.

두자루의 권총으로부터 시작된 우리 혁명무력은 위대한 김정은시대에 자기 발전의 최전성기를 맞이하고있다. 정치사상강군화, 도덕강군화가 힘있게 추진되고 전군에 백두산혼련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는 속에 우리 인민군대는 항일의 총폭탄정신이 꽉 들어차고 기강이 강하며 전군이 진정한 전우가 된 최정예혁명강군으로, 우리 당의 군사전략사상과 전법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극악한 조건과 환경에서도 전투임무를 능숙히 수행할수 있는 실전형의 군대로 강화발전되였다. 정밀화, 소형화된 각종 핵무기들과 잠수함수중탄도탄을 비롯하여 우리 식의 첨단무장장비들을 그쯘히 갖춘 인민군대의 타격력에는 한계가 없다.

미제가 핵을 저들의 독점물로 여기며 우리에 대한 핵공갈과 침략책동을 일삼던 시대는 영원히 종식되였다. 오늘 우리는 미국이 천하는 그 어떤 전쟁에도 대응해줄 지도, 필승의 힘도 다 가지고있다. 세계여론들이 평하듯이 미국에는 오직 정치적항복과 군사적항복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숙명만이 있을뿐이다. 만약 미제와 괴뢰조전광들이 계속 무모한 선제타격망동에 미쳐날뛴다면 백두산혁명강군은 그 무슨 경고나 사전통고도 없이 하늘과 땅, 해상과 수중에서 가장 처절한 징벌의 선제타격을 가할것이다. 세계는 천하무적의 백두산총대에 의하여 조선의 분렬을 영구화하려는 외세의 간섭과 방해책동이 어떻게 끝장나며 우리 민족의 자주적통일위업이 어떻게 빛나게 실현되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것이다.

조선인민군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는 만리마시대의 선구자, 본보기집단이다.

모든 분야, 모든 부문에서 년대와 년대를 뛰여넘는 대비약적혁신을 일으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기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이다. 오늘 주체조선은 당의 구상과 의도를 누구보다 민감하게 받아물고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우리가 다 맡자!》는 구호높이 당정책을 결사관철해나가는 인민군대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만리마시대, 로동당시대의 새로운 대번영기를 맞이하고있다.

지금 인민군대는 어디에서나 기수가 되고 돌격대가 되여 사회를 선도하고있다. 10년을 1년으로 주름잡으며 세계적수준의 건축물들을 일떠세워 새로운 강국건설속도를 창조하는것도 우리 인민군대이며 도처에 21세기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는 본보기, 표준공장들을 세우고 과학농사, 과학축산의 봉화를 높이 들고나가며 황금해, 황금산력사창조에서 선구자가 되고있는것도 인민군대이다. 적대세력들의 극악무도한 제재봉쇄책동을 짓부시며 돌진하는 인민군장병들의 완강한 공격기질과 한계를 모르는 무한대한 정신력, 귀중한 투쟁성과와 경험이 온 나라에 급속히 일반화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전반에서 혁명적앙양이 일어나고있는것이 우리 조국의 격동적인 현실이다. 전체 인민이 인민군대의 모범을 따라배워 폭풍처 내달리기에 경제강국, 문명강국의 펭바루를 향한 우리 조국의 전진속도는 더욱 빨라지고있으며 승리의 붉은기를 휘날릴 그날은 앞당겨지고있다.

수령의 사상과 위업에 무한히 충직하고 전투적기질과 위력도 더없이 막강한 백두산혁명강군을 가지고있는것이야말로 우리 당과 인민의 가장 큰 자랑이며 힘이다.

오늘 우리앞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함으로써 사회주의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전체 인민군장병들은 전군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기치높이 군력강화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킴으로써 조선로동당의 위업을 굳건히 옹위하고 이 땅우에 통일되고 무강번영하는 천하제일강국을 일떠세워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군건설업적을 끝없이 빛내여나가야 한다.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 인민의 군대로 긍지높고 무적필승의 위용을 떨치는 백두산혁명강군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물려주신 최대의 애국유산이다. 전체 인민군장병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주체의 선군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시고 수령님들의 념원을 기어이 실현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주체적인 군건설사상과 유훈을 혁명무력강화의 영원한 지도적지침으로 틀어쥐고 인민군대의 군사정치사업을 철두철미 수령님식, 장군님식대로 진행해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선군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우리 당의 선군령도업적을 깊이 체득하며 빛나게 구현해나가야 한다.

당과 수령을 앞장에서 받들어온 수령결사옹위군, 혁명적당군의 력사와 전통을 대를 이어 빛내여나가야 한다.

오중흠7련대청호쟁취운동과 근위부대운동의 봉화를 높이 추켜들고 전군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와 금수산태양궁전을 절사보위하는 항일의 7련대, 전화의 근위부대로 만들어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유일적령도밑에 조선혁명의 백전백승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영웅적조선인민군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삼지연군꾸리기를 성심성의로 지원한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삼지연군꾸리기를 적극 지원한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삼지연지구를 혁명전통교양의 거점으로 더욱 훌륭히 꾸릴데 대한 당의 호소를 받들고 돌격대에 탄원한 철도성 산하단위 부원 김은혜, 대외건람총국 삼지연창작사 창작가 리룡, 김만유병원 의사 홍인혁, 자강도농업건설설계연구소 설계원 리광미는 맡겨진 일을 책임적으로 수행하면서 지원사업에도 앞장섰다.

대성구역 룡흥1동 44인민반 김인정은 반일애국렬사유자녀들을 아끼고 내세워주는 당의 사랑과 은덕에 충정으로 보답할 한마음안고 년로한 몸이지만 많은 지원물자를 성의껏 마련하여 삼지연군에 어려차례 보내주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고향군을 훌륭히 꾸리는것을 공민의 혁명적의무로 간주한 제신성 산하단위 로동자 윤명순은 온 가족의 지성이 깃든 후방물자들을 보내주어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원들을 위훈창조에로 고무하였다.

내각사무국 산하단위 부원 전진경은 백두산청년강국에서 살며 투쟁하는 청년전위답게 영광의 땅 삼지연군을 혁명전통교양의 대로천박물관으로 전변시키는 사업에 깨끗한 량심을 바쳐가고있다.

백두산아래 첫 동네에서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더 높이 울려퍼지게 할데 대한 당의 숭고한 뜻을 심장깊이 새겨안은 강서탄광 로동자 김윤옥은 혜산-삼지연닐은철길건설장에 많은 건설자재를 보내주어 공사속도를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지난 기간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업적을 빛내이기 위한 사업에 모든것을 바쳐온 조선혁명박물관 산하단위 부원 김현숙은 삼지연군을 이 세상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본보기군, 표준군, 모범군으로 꾸리기 위해 적극 헌신하고있는 돌격대원들을 물심량면으로 도와주었다.

통천군상업관리소 판매원 오은희는 삼지연군을 더 잘 꾸리는데 적은 힘이나마 바칠 일념밑에 들끓는 전투장으로 달려가 돌격대원들속에서 경제선동도 벌리고 지원사업도 통이 크게 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감사를 크나큰 격정속에 받아안은 근로자들은 김정일애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하고 혁명의 성지를 더 훌륭히 꾸리기 위한 투쟁에 앞장섬으로써 당의 믿음에 충정으로 보답할 열의로 가슴 불태우고있다.

본사기자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아이띠준비위원회 결성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아이띠준비위원회가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아이띠조선문화협회 위원장 노엘 스메브가 선출되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주조 무관단, 주조 경제 및 무역참사단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85돐에 즈음하여 주조 무관단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드리는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23일 인민무력상인 륙군대장 박영식동지에게 무관단 단장인 로만 오스발도 히메네스 오르테가 꾸바공화국대사관 무관이 전달하였다.

꽃바구니의 댕기에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각하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라는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85돐에 즈음하여 주조 경제 및 무역참사단이 축하편지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드리는 축하편지를 24일 경제 및 무역참사단 단장인 빠웰 메샤르브 로씨야련방대사관 참사가 해당 부문 일군에게 전달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지지 일본위원회에서 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85돐에 즈음하여 24일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지지 일본위원회에서 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

꽃바구니의 댕기에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각하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라는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본사기자

도이췰란드 베를린주체사상연구소조 결성

태양절에 즈음하여 도이췰란드 베를린주체사상연구소조 결성식이 14일에 진행되였다.

도이췰란드공산당, 도이췰란드반제연단의 인사들과 주체사상신봉자들이 참가한 결성식에서는 발언들이 있었다.

발언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이 진보적인류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되고있으며 세계적판도에서 널리 연구보급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뜻깊은 태양절에 즈음하여 주체사상연구소조를 결성하게 된것을 커다란 기쁨으로, 영광으로 간주한다고 강조하였다.

결성식에서는 소조책임자로 도이췰란드공산당 베를린시위원회 성원인 쎌비오 로씨가, 부책임자로 도이췰란드반제연단 부위원장 아르눌프 피온테크가 선출되였다.

또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축전이 채택되였다.

본사기자

우리 당의 혁명적무장력인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85돐경축

중 앙 보 고 대 회 진 행

【평양 4월 24일발 조선중앙통신】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85돐을 뜻깊게 맞이하고 있는 온 나라 전만군민은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혁명무력의 백전백승의 력사와 전통을 이어가며 동방의 핵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의 필승불패성을 만방에 떨쳐가는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에 넘쳐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슬하에서 창건되여 승리와 영광의 한길을 걸어온 우리 혁명무력은 오늘 전군 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기치높이 선군혁명의 믿음직한 책후대, 억척의 지지점으로, 천하무적의 자위적전쟁억제력을 가진 최정예혁명강군으로 장성강화되여 당의 위업,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무적의 총대로 굳건히 담보해나가고 있다.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희세의 천출명장들을 높이 모시고 빛나는 위훈의 력사를 창조하여온 백두산혁명강군의 85성상의 전투적행로를 긍지높이 돌이켜보면서 조선로동당의 령도따라 세기를 이어온 반제반미대결전을 총결산하고 이땅우에 통일되고 부강번영하는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울 열의에 넘쳐있다.

우리 당의 혁명적무장력인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85돐경축 중앙보고대회가 24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인민문화궁전 대회장은 우리 혁명무력의 창건자, 건설자이시며 주체조선의 영원한 승리의 기치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과 주체의 건군위업의 최전성기를 펼치시여 조국과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해주시고 사회주의조선의 존엄과 국력을 만방에 떨쳐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에 대한 열화같은 신뢰심으로 세차게 끓어번지고 있었다.

대회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휘날리는 붉은 기폭에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우리 당에 충실한 혁명무장력에 영광이 있으라!》 등의 구호들이 대회장에 나붙어있었다.

주석단에는 조선인민군 륙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군 군기들이 세워져있었으며 명예위병들이 서있었다.

대회에는 평양시안의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 당, 무력, 성, 중앙기관 일군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평양시내 기관, 공장, 기업소 일군들, 공로자들이 참가하였다.

또한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와 사회주의조국에 체류하고있는 해외동포들이 참가하였다.

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 무관들, 외국손님들이 대회에 초대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총리인 박봉주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동지가 주석단에 나왔다.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군들인 김기남동지, 최태복동지, 박영식동지, 양형섭동지, 리수용동지, 리만건동지, 김영철동지, 최부일동지, 로두철동지, 리용호동지, 조연준동지, 노광철동지와 우당위원장, 당의 선군혁명위업수행에서 모범적인 군대와 사회의 일군들, 공로자들이 주석단에 자리잡았다.

《조선인민군가》가 주악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무력상인 륙군대장 박영식동지가 대회에서 보고 《조선인민군은 위대한 당의 선군령도따라 백승의 력사와 전통을 영원히 빛내여나갈것이다》를 하였다.

전체 대회참가자들은 조선로동당의 붉은 기발을 제일군기로 추켜들고 백두의 대업을 믿음직하게 옹위해나가는 우리 혁명무력이 있기에 원쑤들이 제아무리 발악하여도 무진막강한 백두산총대, 정의의 혁보검으로 지구상의 온갖 불의를 죽탕쳐버리며 주체의 사회주의는 영원히 승승장구하리라는 확신을 더욱 굳게 간직하였다.

대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체적혁명무력건설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선군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혁명적당군의 불패의 위용을 더욱 높이 떨치며 반미대결전과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갈 참가자들의 혁명적열정이 차넘치는 가운데 진행되였다.

중앙보고대회는 《혁명무력은 원수님 령도만 받든다》노래주악으로 끝났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여러 나라에서 축전을 보내여왔다

평 양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존경하는 김정은동지께

가장 존경하는 김정은동지

저는 조선인민뿐아니라 세계의 모든 혁명가들에게 있어서 뜻깊은 날인 위대한 김일성주석 탄생 105돐에 즈음하여 메히꼬로동당 전체 당원들과 저자신의 이름으로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영원한 주석이신 김일성동지께 최대의 경의를 표합니다.

조선로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신 김일성동지는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새 사회건설의 길을 밝혀주는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으로 발전풍부화시키신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였습니다.

저희들은 당신의 현명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조선인민이 사회주의수호전과 경제강국건설,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언제나 승리만을 이룩하리라고 확신하면서 이 기회에 조선로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승리에로 령도하시는 당신의 고귀한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당신께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메히꼬로동당 전국지도자
알베르또 아나야 구띠에레스
2017년 4월 7일 메히꼬

평 양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존경하는 김정은동지께

저희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이신 김일성동지의 탄생 105돐에 즈음하여 당신께 가장 열렬한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들은 당신께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의 전두에 서시여 현명하게 령도하고계시는데 대하여 전적인 찬대성과 축하를 드립니다.

당신께 형제적인사를 드립니다.

우루과이3월26일운동 위원장
루벤 마리아 베라
2017년 4월 11일 몬떼비데오

평 양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신

김정은각하께

각하

적도기네민주당 전체 당원들과 지지자들은 조선민족의 최대의 명절인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탄생 105돐이 되는 4월 15일에 즈음하여 적도기네민주당 창건자, 위원장인 오비앙 느게마 므바소고각하의 이름으로 각하께와 그리고 각하를 통하여 조선로동당과 전체 조선인민에게 가장 따뜻하고 충심으로 되는 축하를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조선인민이 위대한 수령각하께서 탄생하신 이 뜻깊은 날을 성대히 경축하기를 바랍니다.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립니다.

적도기네민주당 총비서
헤로니모 오싸 오싸 에꼬로
2017년 4월 12일 말라보

평 양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은동지께

존경하는 김정은동지

저희들은 현대조선의 생활에서 중요한 사변으로 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영원한 주석이신 김일성동지의 탄생 105돐에 즈음하여 당신께 가장 충심으로 되는 축하를 드립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새로운 력사적조건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유리하게 발전하고있는 우리 두 나라와 인민들사이의 친선과 협조의 기초를 마련하시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은동지

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민족적명절에 즈음하여 당신께서와 그리고 조선로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근로자들이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전진을 이룩할것을 축원하며 아울러 조선반도에 평화가 깃들고 귀국의 매 가정들이 행복하며 우리 두 나라사이의 경제적 및 문화적련계가 확대강화될것을 기대합니다.

가장 훌륭한 축원을 드립니다.

로씨야자유민주당 위원장
웨. 웨. 쥐리놉스끼
2017년 4월 15일 모스크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태양절에 즈음하여 총련조직과 단체들에서 축전들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에 즈음하여 총련조직과 단체들에서 축전들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재일본조선상공련합회 상임리사회, 재일본조선청년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재일본조선청년상공회 중앙상임간사회, 재일본조선인교직원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재일본조선인교육회 중앙상임리사회, 재일본조선사회과학자협회 중앙상임리사회, 재일본조선인체육련합회 상임리사회, 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재일본조선인의학협회 중앙상임리사회, 재일본조선류학생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재일조선인평화통일협회, 재일본조선인인권협회 중앙상임리사회를 비롯한 총련의 중앙단체들과 산하조직들, 조선신보사, 조선통신사, 학우서방, 금강산가극단, 동해상사주식회사, 금강보험주식회사, 조일경제교류촉진회, 동포결혼상담중앙센터 등 사업체들 그리고 총련의 각 지방본부들, 조선대학교와 각급 재일조선학교들에서 축전들을 드리였다.

축전들은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에 즈음하여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다함없는 충정의 한마음을 담아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시며 재일동포들의 삶의 온인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였으며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리상과 념원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우시여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세계만방에 떨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최대의 영광을 드리였다.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의 완성을 위한 만년초석을 마련하시였으며 자주시대의 해외교포운동을 개척하시고 총련을 창건하여주신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업적은 영원불멸하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은 길출한 수령, 절세의 애국자, 인류의 태양으로 만민의 심장속에 영생하고계신다고 축전들은 칭송하였다.

축전들은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총련에 대한 극진한 사랑과 은정을 가슴깊이 새기면서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재일동포들과 맺으신 뜨거운 정과 혈연의 력사를 변함없이 이어가시며 총련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배려를 돌려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일심단결과 동포들사이에 오가는 따뜻한 정을 힘으로 하여 애국충정의 본태를 빛내여나갈 결의로 가슴 불태우고있다고 지적하였다.

축전들은 완강한 공격정신, 자력자강의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안아오며 혁명의 대번영기를 펼쳐나가고있는 조국과 더불어 뜻깊은 올해를 투쟁의 날과 달로 새겨 주체혁명의 세시대의 요구에 맞게 재일조선인운동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켜나갈것이라고 밝혔다.

축전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안녕은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라고 강조하였다.

축전들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세계자주화를 위하여, 재일조선인운동의 새 전성기와 재일동포들의 행복을 위하여 주체위업의 최고령도자이시며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운명이시고 미래이시며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부디 옥체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하였다.

본사기자

조선인민군은 위대한 당의 선군령도따라 백승의 력사와 전통을 영원히 빛내여나갈것이다

중앙보고대회에서 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무력상인 륙군대장 박영식동지의 보고

오늘 우리는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주체의 전군위업의 최전성기가 펼쳐지고 사회주의조선의 필승의 위력이 힘있게 과시되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85돐을 성대히 경축하고있습니다.

조선인민군이 걸어온 지난 85년의 력사는 주체의 기치, 선군의 기치높이 혁명의 폭풍우를 헤치며 당과 수령의 군대, 일당백의 백두산혁명강군으로 강화발전되여온 영광의 로정이고 준엄한 반제반미대결전에서 백승을 떨치며 나라의 자주권과 인민의 운명, 사회주의와 세계의 평화를 굳건히 수호하여온 위대한 승리의 년대기입니다.

지금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희세의 선출위인들을 높이 모시고 가장 빛나는 위훈의 력사를 창조하여온 조선인민군의 전투적행로를 긍지높이 돌이켜보면서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백두의 선군전통을 굳건히 계승하며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불타는 열의에 넘쳐있습니다.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85돐에 즈음하여 우리 혁명무력의 창건자, 건설자이시며 영원한 승리의 기치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열화같은 충정의 마음을 담아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립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위임에 따라 혁명의 총대를 억세게 틀어잡고 당의 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가고있는 영용한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과 로농적위군, 붉은청년근위대 대원들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조국의 자주독립과 인민의 해방을 위하여 고귀한 생명을 바친 항일혁명선렬들과 인민군렬사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항일대전과 조국해방전쟁에서 영웅적위훈을 떨치였으며 오늘도 최후승리를 향한 총진군대오에 애국충정의 신념을 더해주고있는 항일혁명투사들과 전쟁로병들, 전설한 혁명군인의 자세로 조국과 인민을 위한 복무의 길을 변함없이 이어가고있는 영예군인들과 제대군인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을 다그치기 위한 전민총돌격전에서 날에날마다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며 혁명무력의 강화발전에 온갖 지성을 다바치고있는 전체 인민들에게 뜨거운 전투적인사를 보냅니다.

동지들!

혁명군대의 최대의 영광은 세월과 더불어 끝없이 빛을 뿌리는 위대한 승리의 력사와 전통을 가지는것이며 그것은 탁월한 수령의 령도에 의하여서만 이룩될수 있습니다.

조선인민군은 불세출의 선군령장들을 높이 모시여 자주시대 혁명무력건설의 독창적인 길을 개척하고 장장 85성상에 달하는 백전백승의 력사와 빛나는 전통을 창조한 불패의 혁명강군입니다.

세계군건설사는 조선인민군과 같이 혁명의 개척기에 이룩된 승리의 전통을 세대와 세기를 이어 고수해온 영광스러운 군대, 정치사상전선에서나 반제군사전선, 경제문화전선을 비롯한 모든 전선에서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지닌 중임을 훌륭히 수행하여온 무적의 군대를 알지 못하고있습니다.

일제식민지통치의 가장 암담하던 시기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혁명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총대우에 나라와 민족의 자주독립도 혁명의 승리도 있다는 선군의 철리를 밝히시고 주체21(1932)년 4월 25일 주체형의 첫 혁명적무장력인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시였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이 창건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력사상 처음으로 탁월한 수령의 령도를 받는 자기의 진정한 혁명군대를 가지게 되였으며 이때로부터 총대의 위력으로 승리하며 전진하는 조선혁명의 영광스러운 력사가 시작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의 불길속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을 자주시대 혁명군대의 참다운 전형으로, 주체혁명의 강력한 령도핵심으로 키우시고 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거족적인 반일민족해방투쟁으로 강도 일제를 격멸하시였으며 우리 혁명의 고귀한 승리의 시원을 열어놓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백두의 선군전통에 토대하여 정규무력건설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시였으며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령도하시여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침략자들에게 수치스러운 참패를 안기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영예롭게 수호하시였습니다.

반제혁명전쟁사에 길이 빛날 20세기의 군사적기적을 이룩하는 나날에 창조된 영웅조선의 자랑찬 전통은 정치사상적, 정신도덕적우월성을 제일무기로 틀어쥐고 그 어떤 대적도 우리 식의 뼈활한 전법과 전략전술, 우리의 주체적력량으로 짓밟아버릴 필승의 전통이며 그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선군조선의 재부중의 재부입니다.

세계 그 어느 나라 군대도 가지지 못한 이 위대한 전통을 세기를 이어 계승해왔기에 조선인민군이 오늘처럼 강하고 주체의 사회주의조선이 승승장구하고있는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혁명, 사회주의건설을 령도하시는 전 로정에서 총대중시사상과 자위의 군사로선을 일관하게 구현하시여 인민군대를 일당백의 혁명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국방공업을 일떠세우시였으며 우리 조국을 전민이 무장하고 전국이 요새화된 난공불락의 보루로 전변시키시였습니다.

두자루의 권총으로부터 시작하여 세계가 경탄하는 무적의 혁명무력을 건설하심으로써 우리 인민에게 자주적운명개척의 강위력한 보검을 안겨주시고 민족만대의 존엄과 번영을 담보하는 튼튼한 군사적토대를 마련하신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이룩하신 최대의 업적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창건되고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온 조선인민군은 위대한 선군령장 김정일동지의 령도따라 나아감으로써 자기 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서게 되였습니다.

총대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총대로 끝까지 완성할 철석의 의지를 지니시고 일찍부터 선군혁명령도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군김일성주의화를 군건설의 총적임무로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끄시여 인민군대를 완전무결한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 강화발전시키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혁명의 가장 엄혹했던 시기 선군정치를 전면적으로 펼치시여 인민군대를 수령결사옹위정신, 총폭탄정신으로 만장약된 최정예혁명강군으로 키우시고 우리의 국방공업을 그 어떤 현대적인 무장장비도 마음먹은대로 만들어내는 첨단수준의 강위력한 혁명공업으로 다지시였습니다.

반세기가 넘는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선군령도밑에 우리 인민군대는 당과 수령의 위업을 앞장에서 받들어나가는 혁명의 기둥, 주력군의 위용을 남김없이 떨치며 백두산혁명강군의 승리의 력사와 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왔습니다.

미제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사건과 《EC-121》대형간첩비행기사건, 《판문점사건》을 비롯하여 적들의 전쟁도발책동이 감행될 때마다 초강경대응으로 어지럽이 짓부셔버리였으며 세기를 이어 계속된 반제반미대결전에서 세계전쟁사가 알지 못하는 포성없는 전승신화를 창조한 조선인민군의 혁혁한 공적은 우리 당의 선군혁명사에 찬연히 아로새겨져있습니다.

혁명적군인정신의 창조자인 인민군대의 핵심적이며 선도적인 역할에 의하여 군대와 인민의 사상의 일치, 투쟁기풍의 일치가 확고히 실현되고 우리 사회의 밑뿌리인 군민대단결이 반석같이 다져졌으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넓은 진격로가 열려졌습니다.

전대미문의 사회주의수호전을 련전련승에로 이끄시며 우리 나라를 세계적인 군사강국, 당당한 핵보유국의 지위에 올려세우시고 자주시대와 더불어 영원할 선군조선의 승리의 전통을 끝없이 빛내이신것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국과 민족, 시대와 력사앞에 쌓아올리신 특출한 혁명업적입니다.

오늘 우리 인민군대는 또 한분의 백두의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여 주체의 전군위업의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는 일찍부터 위대한 장군님과 선군길에 함께 계시며 령장의 품격과 자질을 완벽하게 지니시였으며 천재적인 군사전략사상과 무비의 탁력, 탁월한 령도로 군력강화의 새로운 전성기를 펼쳐가시는 우리 혁명무력의 백전백승의 기치이십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전군길에서 인민군대가 전군 김일성-김정일주의화 기치를 높이 들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군건설유훈을 철저히 관철하며 모든 군사사업과 활동을 철두철미 수령님식, 장군님식대로 진행해나가도록 이끄시였습니다.

인민군대를 선군혁명의 믿음직한 척후대, 억척의 지지점으로 만들데 대한 사상과 4대강군화의 전략적로선, 훈련혁명, 군사교육혁명을 일으킬데 대한 방침을 비롯하여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제시하신 독창적인 군건설사상과 로선들은 혁명적당군건설의 새 력사를 창조해나가게 하는 불멸의 대강으로 되였습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우리 혁명의 근본리익과 격전전야의 첨예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인민군대를 김일성-김정일군사전략전술과 영웅적전투정신, 완벽한 실전능력을 소유한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만들며 우리 군대의 군사기술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전두에서 이끄시였습니다.

위험천만한 최전방초소들과 불비쏟아지는 전투훈련장들, 첨단무기시험발사장들을 불철주야로 찾으시며 인민군대의 전투력강화를 위해 바쳐오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헌신의 자욱은 조국의 하늘과 땅, 바다 그 어디에나 새겨져있습니다.

미제와 괴뢰호전광들의 가증되는 핵전쟁연습소동과 악랄한 침략야망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시며 주체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쳐가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령도는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질풍노도쳐나아가는 우리 군대의 무한대한 정신력과 전투력의 근본원천으로 되고있습니다.

천하제일명장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를 모시여 오늘 주체의 군건설위업은 가장 높은 경지에 올라섰으며 우리 인민군대는 세계적인 혁명강군으로 그 위용을 만방에 떨치고있습니다.

85년의 영광스러운 년륜을 새겨온 자랑찬 력사에서 우리 인민군대가 정치사상적으로나 군사기술적으로 오늘과 같이 강한 때는 없었습니다.

조선인민군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오직 당이 가리키는 한방향으로만 나아가는 사상과 신념의 전위대오로 존엄떨치고있습니다.

조선인민군의 력사는 당의 령도를 제일생명으로 간직하고 수령결사옹위의 고귀한 전통을 맨 앞장에서 창조하여온 력사이며 수령보위, 당중앙사수를 최대의 사명으로 내세우고 투쟁하는 바로 여기에 우리 인민군대의 백전백승의 근본비결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혁명무력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는 우리 당과 조국, 인민의 운명이고 미래이시며 최고사령관동지의 령도는 곧 승리이라는 절대불변의 신념을 심장깊이 쪼아박고 백두의 혈통, 백두의 대업을 총대로 믿음직하게 옹위해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장병들이 천겹만겹의 성새, 방패가 되여 당중앙과 끝까지 생사운명을 같이해나가며 전군에 당의 유일적령군체계가 철저히 확립된것은 그 어느 나라 군대도 가질수 없고 흉내조차 낼수 없는 김정은혁명강군의 고유한 특질이며 자랑스러운 보금입니다.

수령결사옹위의 제일강군인 인민군대가 로동당의 붉은 기발을 제일군기로 높이 들고 당의 령도를 총정다해 받들어나아가기에 우리 혁명의 단결의 중심, 령도의 중심은 확고부동하며 주체의 혁명위업은 추호도 흔들림없이 영원히 승승장구할것입니다.

조선인민군은 반제반미대결전, 사회주의수호전에서 언제나 승리만을 이룩해나가는 용맹한 결사대로 위용떨치고있습니다.

우리의 존엄을 건드리는자는 그 누구도 절대로 용서치 않으며 우리 대에 반드시 반미대결전을 총결산하려는것은 인민군대의 드팀없는 의지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5돐경축 열병식이 보여준바와 같이 오늘 우리 조국의 전략적지위와 우리 인민군대의 군사적위력은 천지탄을 휘두르는 대적과 보병총으로 맞서 싸우던 1950년대 전쟁때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우리에게는 미제가 원하는 그 어떤 전쟁방식에도 기꺼이 상대해줄 무적의 힘이 있습니다.

강용한 우리 인민의 멸적의 투지가 만장약된 각종 핵탄들과 첨단타격수단들을 장비하고 만능의 주체전법으로 무장한 인민군대의 타격력은 우리의 최고사령부가 결심하는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작전공간에서 침략자, 도발자들을 무지비하게 족랑쳐버릴수 있는 무진막강한것입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지도밑에 최근에 진행된 《북극성》탄도탄시험발사와 새형의 대출력발동기지상분출시험의 완전성공,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의 탄도로케트발사훈련과 땅크병경기대회, 특수작전부대 강하 및 대상물타격경기대회는 한다면 하고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백두산혁명강군의 칼바람기상과 필승의 위력에 대한 뚜렷한 과시로 됩니다.

인민군대는 우리 당의 사회주의강국건설구상을 빛나는 현실로 전변시키는 힘있는 돌격대, 불가능을 모르는 위훈의 창조자로 영예떨치고있습니다.

주체조선의 장구한 사회주의건설력사에는 당의 구상과 결심을 지상의 명령으로 여기며 물불을 가리지 않고 앞장에서 관철해온 우리 인민군대의 영웅적위훈이 력력히 아로새겨져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념원, 강국념원을 빛나게 실현하고 인민들에게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한 생활을 안겨주려는 우리 당의 웅대한 설계도를 현실로 꽃피우려는것은 우리 인민군대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당에서 준 과업을 화약에 불이 달린것처럼 폭풍쳐내달려 당에서 정해준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관철해나가는 일당백공격정신, 그 어떤 악조건에서도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앞길을 개척해나가는 혁명적기풍, 바로 이것이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기수인 인민군대의 투쟁정신이며 투쟁기풍입니다.

당의 부름이라면 천만산악도 단숨에 떠옮기는 인민군장병들의 헌신적인 투쟁과 군민대단결, 군민협동작전의 위력에 의하여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들과 영웅신화들이 련이어 창조되고 만리마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고있으며 혁명의 전성기가 대번영기로 이어지고있습니다.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빛나게 완성하여 위대한 우리 인민에게 승리의 월계관을 안겨주려는 당중앙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군력강화와 조국수호,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역에서 세기적인 전변을 안아온 인민군장병들의 영웅적위훈을 우리 당과 인민은 영원히 잊지 않을것입니다.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이 키워내고 이끄는 혁명강군만이 백승의 력사와 전통을 굳건히 고수하고 최후의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는 바로 이것이 영웅적조선인민군의 85년력사가 보여주는 고귀한 진리입니다.

뜻깊은 이 자리에서 조선인민군을 백두의 대업을 영원히 받드는 필승불패의 혁명적무장력으로 강화발전시키시며 조국과 민족의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해주시고 사회주의조선의 존엄과 국력을 만방에 떨쳐가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인사를 드립니다.

동지들!

오늘 우리앞에는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조선인민군의 영광스러운 승리의 력사와 전통을 빛나게 계승해나감으로써 세기를 이어온 반제반미대결전을 총결산하고 이 땅우에 통일되고 부강번영하는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워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전군을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여 인민군대를 영원히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군대, 당의 군대로, 그 어떤 강적도 타승할수 있는 무적의 백두산혁명강군으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을 주체의 선군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받들어모시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군건설업적을 끝없이 빛내여나감으로써 백두에서 시작된 백승의 진군사가 세세년년 줄기차게 흐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지나온 혁명의 년대들에 높이 발휘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의 전통을 굳건히 계승하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일편단심 충직하게 받들어나가야 하겠습니다.

인민군대에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일하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유일적령군체계를 튼튼히 확립하고 오중흠7련대칭호쟁취운동과 근위부대운동을 힘있게 벌려 당이 제시한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하겠습니다.

인민군대에서는 정치사상강군화, 도력강군화를 쌍기둥으로 틀어쥐고 당정치사업을 전공적으로 벌려 전군을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당중앙과 영원히 사상과 뜻, 운명을 같이하는 진정한 동지부대, 전우부대로, 당중앙을 결사보위하는 천연요새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당의 혼련혁명 5대방침을 높이 받들고 백두산혼련열풍, 싸움준비열풍을 강도높이 일으켜 모든 장병들을 그 어떤 침략무리도 일격에 격멸소탕할수 있는 일당백의 만능싸움군, 백두산호랑이들로 키워야 하겠습니다.

항일유격대식부대지휘관리방법을 구현하여 전군에 칼날같은 군기를 세우고 정규화저변모를 더욱 철저히 갖추며 모든 중대, 대대들을 당중앙위원회 뜨락과 잇닿아있는 병사들의 정든 고향집, 정든 고향마을로 꾸려야 하겠습니다.

인민군장병들은 당이 부르는 대고조전투장들마다에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주력군, 돌격대의 위력을 계속 높이 떨치며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더 많이 찾아함으로써 당의 군대, 인민의 군대로서의 본분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국방공업부문에서는 항일의 연길폭탄정신과 전화의 군자리정신으로 주체무기개발생산에 더 큰 박차를 가하여 인민군대의 무장장비현대화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하며 온 사회에 군사중시기풍을 확립하고 로농적위군, 붉은청년근위대의 전투력을 강화하여 최후승리를 위한 전민항전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전체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군민대단결의 위력으로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을 다그치기 위한 총돌격전을 힘차게 벌려 뜻깊은 올해에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확고한 전망을 열고 만리마선구자대회를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여야 합니다.

지금 조선반도에는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광란적인 침략전쟁연습소동으로 최악의 핵전쟁발발국면이 조성되고있습니다.

적들의 도발에는 즉시적인 대응타격으로, 침략전쟁에는 정의의 조국통일대전으로, 바로 이것이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는 백두산혁명강군의 원칙적립장이며 투쟁방식입니다.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을 무자비하게 두들겨팰 우리 식의 초정밀화되고 지능화된 위력한 타격수단들은 이미 실전배비되였으며 아시아태평양지역 미제침략군기지들과 미국본토를 초준경안에 잡아넣은 우리의 핵공격수단들은 지금 이 시각도 항시적인 발사대기상태에 있습니다.

만약 적들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천하무도한 군사적모험의 길로 나오려고 한다면 우리 혁명무력은 이미 선포한대로 강력한 핵선제타격으로 침략의 아성을 지구상에서 완전히 없애버리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기어이 성취하고야말것입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백전백승의 령도따라 백두산총대를 억세게 틀어쥐고 광명한 미래를 향하여 폭풍쳐나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에는 언제나 영광만이 있을것이며 승리는 영원히 우리의것입니다.

모두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더욱 억세게 싸워나아갑시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만세!

영웅적조선인민군 만세!

증산돌격전으로 많은 전력 생산

함경북도의 수력발전소들에서 발전기마다에 만가동을 보장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이곳 발전소들의 로동계급이 증산돌격전을 벌려 뜻깊은 4월에 들어와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는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일군들은 늘 끓는 현장들에 나가 전력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장악하고 이신작칙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나가는 한편 침입식정치사업으로 대중의 열의를 더욱 고조시키였다.

증산성과로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참답게 이바지해갈 애국의 마음안고 서두수발전소의 전력생산자들이 혁신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고있다.

1호, 2호, 3호, 대홍단발전소의 전력생산자들은 엄간점검 및 순회점검을 책임적으로 하고 발전설비들의 효률을 최대한 높여 매일 계획을 초과완수하고있다.

특히 신양양수직장, 무봉양수장의 로동자들은 지력자강의 정신으로 예비부속품들을 넉넉히 갖추고 대형양수기들의 보수정비를 잘하여 전력생산에 필요한 물을 원만히 보장해주고있다.

부령발전소에서 발전설비와 구조물보수를 질적으로 하면서 기술혁신을 짜고들어 날마다 실적을 올리고있다.

1호, 2호, 3호발전소의 로동계급은 기술자들과 힘과 지혜를 합쳐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창안도입하고 수력구조물들에 대한 감시와 대책을 철저히 세워 일별계획을 훨씬 넘쳐 해제끼고있다.

발전소들의 보장단위들에서도 지력갱생, 자급자족의 구호를 높이 들고 최대한 증산하고 절약하기 위한 투쟁을 드세게 벌려 발전설비보수에 필요한 부속품들을 제때에 보장해주고있다.

함경북도안의 전력생산자들은 만리마선구자대회를 증산성과로 빛내일 열의드높이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조선중앙통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송림시 인포협동농장 제2작업반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현실에서 우월성이 확증된 우량종자와 과학적인 영농방법을 널리 받아들이며 두벌농사면적을 늘이고 능률적인 농기계들을 적극 창안도입하여 알곡고지를 기어이 점령하여야 합니다.》

당면한 영농전투로 부글부글 끓고있는 송림시 인포협동농장 제2작업반에 가면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큰모의 모내기를 할수 있게 자체의 힘으로 개조한 모내는기계들을 볼수 있다.

이 기계는 개조방법이 간단하고 품이 적게 들어 어디서나 받아들일수 있다. 우선 종전에는 모내기를 10렬로 하게 되였던것을 8렬로 할수 있게 함으로써 소식재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인 평당 포기수보장을 더욱 과학적으로 할수 있게 하였다. 또한 3개로 되여있던 모내는기계의 모손살을 2개로 하고 모손살들의 간격을 넓혀주어 랭상모때보다 일수가 많아진 큰모의 모내기를 할수 있게 하였다.

지난해 이 기계를 일부 포전에서 리용해보았는데 좋은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무엇보다도 사람의 손으로 모내기를 한 포전보다 정보당 수백kg의 알곡이 증수되였다. 그 중요한 비결은 모내기를 최적기에 끝낸데 있었다. 이와 함께 모풀는 길이를 과학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모살이기간이 짧아지고 초기생육이 왕성해진 결과였다. 많은 로력이 절약되였다는것은 두말할것도 없다.

기계화비중의 높이이자 알곡증산성과이다.

현실을 통하여 이것을 다시금 확신한 작업반장 조영철동무를 비롯한 초급일군들은 더욱 분발해나섰다. 올해농사에서 모든 논면적에 이른큰모에 의한 소식재배를 받아들이는데 맞게 작업반에 있는 모내는기계들을 전부 개조할 목표를 세우고 완강하게 실천해나갔다.

물론 자체의 힘으로 이것을 한다는것은 헐한 일이 아니였다. 하지만 초급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현지지도자욱이 뜨겁게 어려있는 영광의 포전에 기계화의 동음을 더 높이 울려갈 불타는 열의를 안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나갔다.

특히 모내는기계개조안을 착상한 리명현동무를 책임자로 하는 기술혁신조를 조직하고 걸린 문제들을 책임적으로 풀어주면서 적극 떠밀어주었다. 그리고 모내는기계를 8렬로 개조한데 맞게 깊은층비료주는기계도 8렬로 개조하기 위한 사업을 동시에 밀고나가 완전무결하게 결속하였다.

이들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잎덧비료주는 장치까지 설치하여 비료주기를 완전히 기계화하기 위한 사업도 마감단계에서 추진시키고있다.

당의 뜻을 받들고 초급일군들이 앞장에 서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간다면 그 어느 단위에서나 농산작업의 기계화비중을 현저히 높여나갈수 있다.

이 작업반의 성과들이 이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지금 이들은 기계화의 자랑찬 동음으로 알곡고지점령의 돌파구를 열고 뜻깊은 올해농사에서 기어이 풍장훈을 부를 야심만만한 배심으로 더욱 박차를 가하고있다.

박영진

무적필승의 백두산혁명강군으로 위용떨친 승리와 영광의 력사

열병대오의 선두에 항일무장투쟁시기종대가 있다

뜻깊은 건군절을 맞는 우리의 눈앞에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5돐 경축광장을 보무당당히 행진해가던 열병대오의 자랑스러운 모습이 가슴호뭇하게 안겨온다.

위대한 수령님의 태양상을 모신 초상기와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상을 모신 초상기를 정중히 앞세우고 지축을 울리며 나아가는 열병종대들…

그 대오의 선두에서 선군혁명의 제1세, 항일무장투쟁시기종대가 군중들의 열렬한 박수갈채를 받으며 굽이쳐갔다.

우리의 첫 혁명적무장력이 태여난 주체21(1932)년 4월 25일, 력사의 그날이 있어 승리와 영광만을 아로새겨온 백두산혁명강군의 빛나는 전통이 있고 동방의 핵강국, 군사강국으로 존엄높은 우리 조국의 오늘이 있는것 아닌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군대는 항일유격대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직접 계승한 우리 당의 혁명적무장력입니다.》

우리의 귀전에 안도현 소사하의 토기점골등판에서 조선의 주체적인 첫 혁명적무장력의 탄생을 선포하신 빨찌산 김태장을 우러러 목청껏 환호하며 보무당당히 행진해가던 그날의 발구름소리가 들려오는듯싶고 카렌처럼 했던 조국해방전쟁의 격전장들마다에서 《당과 수령을 위하여 돌격 앞으로!》라고 웨치던 투사들의 불굴의 모습이 눈앞에 안겨오는듯싶다.

백두의 풀물오른 군복을 그대로 입고 한생 총대로 당과 수령을 받들어온 항일의 로투사들은 또 그 얼마이던가.

영웅적조선인민군이 걸어온 장장 85년의 력사속에는 우리 혁명의 제1세대들인 항일혁명투사들의 고귀한 피와 땀이 뜨겁게 슴배여있다.

잊을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의 새 조국건설로선을 높이 받들고 항일의 불바다길을 달리던 그 걸음으로 정규무력건설에 앞장서던 투사들의 모습을, 수령님께서 기관단총을 만들어내고 땅크병들을 육성해내던 그들을 온 나라 인민이 우리 혁명무력의 참된 지휘관들로 존경하며 따르지 않았던가.

지난날 왜놈의 노예로, 대포밥으로 값없이 사그라져가던 자신들을 한품에 안아주신 위대한 수령님을 받들어 혁명하는 길에서는 살아도 영광, 죽어도 영광이라는 신념을 빨찌산시절부터 체질화한 항일혁명투사들이었다.

조국해방전쟁사에는 해방후 우리 혁명무력의 골간을 이루었던 투사들의 영웅적위훈이 금문자로 새겨져있다.

항일혁명투사 류경수동지,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류경수동지는 위대한 수령님의 전략적방침을 높이 받들고 수많은 중요전투들에서 부대를 능숙하게 지휘하여 최고사령부의 작전적의도를 훌륭히 관철하였다. 특히 서울해방전투때 류경수동지가 지휘한 땅크부대는 원쑤의 아성에 선참으로 돌입하여 서대문형무소에 갇혀있는 수많은 애국자들을 구원하고 피뢰중앙청에 공화국기발을 휘날림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자라난 우리 혁명무력의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전선사령부 참모장으로서 어버이수령님의 반공격명령을 높이 받들고 군사전략상 주요한 전투들을 능숙하게 조직지휘하며 영웅적으로 싸우다가 서른두살에 장렬하게 전사한 강건동지, 적들의 해안상륙기도를 짓부시기 위한 전투에서 커다란 공적을 세웠으며 적들과의 치렬한 전투에서 장렬한 최후를 마친 조정철동지, 전쟁초기에 남진의 앞장에서 수많은 전투들을 승리적으로 조직지휘하여 미제침략자들을 락동강계선까지 몰아내는데 크게 공헌하였으며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에는 서울방어전투를 비롯한 여러 전투들을 능숙하게 벌려 적들의 맹악적공세를 좌절시키고 전국을 전환시키는데서 커다란 위훈을 세운 최광동지, 적후무장과 고지방어, 해안방어 등 싸움마다에서 맞다든 적들을 통쾌하게 족쳐대던 최현동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최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유격전쟁은 투사들을 키워내는 용광로였고 군정대학이였다, 이 용광로에서는 숱수한 강철만 뽑아냈다, 돌받이나 지주짐 외양간에서 굴러다니던 떡쇠도 이 로에만 들어가면 번쩍번쩍하는 강쇠가 되어 나왔다고 회고하시였다.

그렇다. 우리 혁명무력의 첫 세대 지휘관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전의 나날 한명한명 품들여 키우신 유능한 군사지휘관들이였다.

우리 혁명무력의 첫 세대 지휘관들이 지녔던 불같은 충정과 강인담대한 영웅성의 원천이 무엇이였는가를 항일혁명투사 류경수동지는 《그 품 떠나 못살아》라는 자작시에 그대로 새겨넣었다.

가까운 곳에서도 먼곳에서도
그이의 떡박 내 몸에서 뛰고
그이의 체취 내 몸을 덮허
주거니
나는 언제나 그 품에서 사는
전사
그 품 떠나 나는 못살아

이것은 그만이 아닌 항일혁명투사모두의 철석같은 신념이고 의지였다.

바로 이런 항일의 투사들이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믿음을 가슴마다에 새겨안고 카렌처럼 한 싸움의 앞장에 섰기에 우리의 혁명적무장력은 발톱까지 무장한 강도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을 해방할수 있었으며 보병총과 천자탄의 대결이라고도 할수 있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를 통쾌하게 타승하는 전대미문의 군사적기적을 창조할수 있었다.

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백두산에서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싸운 항일혁명투사들은 모두 애국심이 강한 혁명가들이였다고, 자신께서는 머리가 희여희여한 항일혁명투사들이 지금도 전사의 자세로 수령님을 받들고 따르는 그 숭고한 정신세계를 볼때마다 그들을 더없이 존경하게 된다고 하시며 주실수 있는 온갖 사랑과 은정을 다 돌려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품속에서 항일혁명투사들은 우리 당의 영원한 혁명전우로, 백전로장으로 삶을 빛내여올수 있었다.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85년을 보내고 새로운 백승의 력사를 펼치게 될 백두산혁명강군의 슴결속에 영웅적기상이 태동하고있다.

보다 큰 승리, 보다 눈부신 위훈을 예고하며 맥동치는 그 슴결에서 인민군장병들의 목소리가 울린다.

과연 어떤 군대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대한 군대로 될수 있는가.

어제도 오늘도 열병대오의 선두에서 나아가는 항일무장투쟁시기종대에 그 태답이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혁명을 알고 총대의 귀중함을 뼈저리게 체험한 항일투사들, 수령결사옹위, 대중적영웅주의를 제일가는 근풍으로, 애국의 바통으로 넘겨준 우리 혁명무력의 첫 세대가 있어 오늘의 백두산혁명강군이 있고 우리의 승리는 영원하다.

또 한분의 백두산장군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혁명무력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어 영웅적조선인민군은 앞으로도 제국주의침략세력의 도전을 단호히 짓부시며 조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믿음직하게 수호해나갈것이다.

본사기자 리 경 일

일당백의 싸움군, 빛나는 위훈의 주인공들

미제의 코대를 꺾어놓은 만능해병들

주체57(1968)년 1월 23일 정상적인 정찰근무를 수행하던 조선인민군해군 구잠함 35호 해병들은 오전 11시경 원산부근 려도로부터 가까운 수역에서 미제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를 발견하게 되였다.

정치부함장(당시) 박인호동무가 책임진 7명의 수색조가 즉시 만단의 전투동원태세를 갖추고 나섰다.

침착하면서도 결단성있는 수뢰장 박영길, 명사수이며 권투선수로 소문난 고병건, 엄격하면서도 무슨 기재나 막힘없이 척척 다루는 수뢰분조장 김중록…

전투임무를 받은 그들은 어뢰정을 《푸에블로》호곁에 바싹 접근시키면서 선체가 높은 적함의 선미갑판우로 비호같이 뛰여올랐다.

선참으로 적함의 맨우에 있는 예비지휘소로 뛰여오른 수뢰장 박영길동무가 선미마스트에 붙어있는 성조기를 찢어버리고 공화국기를 되웠다.

김중록동무와 수뢰수 김현기동무가 함선지휘소에 뛰여들어가 함장놈을 체포하고 그놈을 리용하여 선실에 몰켜있던 대부분의 적들을 갑판우로 끌어냈다.

전투는 순식간에 끝났고 이날의 승리는 조국청사에 빛나는 한페지로 새겨졌다.

세계를 또 한번 놀래운 미제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의 나포, 그 기적을 창조한것은 만능싸움군들로 준비된 우리의 미더운 해병들이였다.

대형간첩비행기를 추풍락엽으로 만든 하늘의 매들

지금으로부터 48년전 4월, 세계 여러 나라 언론들은 벅적 끓었다.

《북조선이 자기 나라 령공에 침입한 미군대형정찰기 1대를 격추》, 《날아가는 〈푸에블로〉호가 격추되었다.》

미제는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사건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번에는 대형간첩비행기 《EC-121》을 우리 나라 령공에 침입시켰다.

언제나 출격명령만을 기다리면서 만단의 태세를 갖추고있던 우리의 추격기비행사들은 즉시에 리륙하여 적비행기를 공중에서 박산내고말았다.

날개우에는 해와 별이 승리의 항로 비치고 날개밑에는 정든 산천이 위훈에로 불러준다고 노래하며 당중앙을 사수하는 하늘의 방패로 사는 미더운 비행사들이 있어 조국의 하늘은 언제나 맑고 푸르렀다.

지금으로부터 3년전, 뜻깊은 태양절에 진행된 조선인민군 제1차 비행사대회의 주석단에는 주체58(1969)년 4월 15일 조국의 령공에 불법침입한 미제의 대형간첩비행기 《EC-121》을 단호히 요정낸 조선인민군 항공군의 비행기가 전시되여있었다.

연평도를 만들어버린 불바다로 영웅포병들

우리 인민은 오늘도 격렬했던 연평도포사격전투를 잊지 못하고있다.

지금으로부터 7년전 11월 적들은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조선서해 연평도일대의 우리측 령해에 수십발의 포사격을 가하는 무모한 군사적도발을 감행하였다.

조국의 신성한 령해를 지켜선 우리의 용감한 서남전선의 영웅적포병들은 분별없이 날뛰는 적들에게 멸적의 포화를 들씌워 연평도를 순식간에 불바다로 만들어버림으로써 조국의 존엄과 명예를 영예롭게 사수하였다.

도발자들의 불질을 무자비한 불벼락으로 다스리는것은 우리 군대의 전통적인 대응방식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연평도포격전투때 우리 군인들이 적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안기면서도 한명의 인명피해도 내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고, 그것은 연평도포격전투에서 우리가 거둔 제일 큰 성과라고 말할수 있다고 뭇내 기뻐하시였다.

백두산장군의 승리의 철학, 전승의 원칙이 철저히 구현된 연평도포사격전투야말로 조선인민군의 승리가 어떤것인가를 다시금 새겨주는 력사적사변으로 되였다.

본사기자 리 신 향

수필 백승의 담보

뜻깊은 건군절을 맞으며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을 찾았던 우리는 부주제군상 《후방인민들의 전선원호》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탄약상자를 머리에 이고 고지로 오르는 녀인과 탄약상자를 나르는 소년과 늙은이, 박격포와 포탄을 인민군용사에게 넘겨주는 로동자…

군복도 령장도 없는 평범한 인민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깊은 생각을 불러일으켰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에 대한 군대의 헌신적복무정신과 군민일치, 이것이 우리 혁명무력으로 하여금 강대한 일제와 미제를 타승할수 있게 한 힘의 원천이였습니다.》

전쟁은 무장을 잡은 집단들간의 격렬한 싸움이다. 이런 싸움에서 적수공권의 인민은 언제나 희생물로만 되여왔다.

하지만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 이 나라의 인민은 결코 관망자, 희생물이 아니였다.

우리 잠시 돌이켜보자.

우리의 혁명적무장력이 어떻게 창건되였고 어떻게 간악한 두 제국주의와 싸워 승리할수 있었으며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침략과 도전속에서 백승의 력사를 아로새길수 있었던가.

혁명무력창건의 첫 고고성도 인민이라는 샘줄기가 있었기에 그렇듯 우렁찼고 일제의 백만 관동군과의 대결속에서 조국해방의 성업을 이룩할수 있은것도 인민의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때문이였다.

우리 수령님 그토록 잊지 못하시던 장백의 물방아소리.

우리가 백두산을 거점으로 오랜 기간 항일전쟁을 할수 있었던것은 장백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의 덕이라고 보아야 할것이라고, 장백마을들을 드나들 때에 그 물방아들에서 우리에 대한 인민의 절대적인 사랑과 확고부동한 지지성원의 의지, 죽음앞에서도 변할줄 모르는 지조를 보았다고 뜨겁게 회고하신 어버이수령님이시였다.

혁명적원군전통의 모범을 창조한 장백사람들의 원군정신은 카렌처럼 했던 조국해방전쟁의 나날에 남강마을녀인들의 영웅적원군기풍으로 계승발전되여 미제의 《불패》의 신화를 보기좋게 깨버릴수 있었다.

청소한 우리 공화국이 비대한 제국주의강적과 맞서싸워 승리를 이룩할수 있은것은 전민이 총동원되고 군민이 일심단결되여 싸웠기때문이였다.

하기에 우리 당은 전승의 위훈을 만대에 전하는 위대한 기념비에 영용한 조선인민군 병사들의 모습과 함께 승리를 위해 헌신적으로 싸운 후방인민들의 모습도 군상으로 새겨놓은것이다.

이 위대한 전통은 세대와 세대를 이어 계승되여 오늘 이 땅우에 세상에 둘도 없는 군민대단결을 안아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5돐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는 군대와 인민이 령도자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친 우리 조국에서만 펼쳐질수 있는 대서사시적화폭이다.

그렇다. 우리 인민군대의 85년의 력사속에는 언제나 인민이라는 거세찬 대하가 흐르고있다.

조선인민군은 인민이라는 리전에서 탄생하였고 원군을 자양분으로 백승을 떨치였으며 군민대단결을 원동력으로 최후승리를 이룩해나가는 이 세상에 전무후무한 불패의 강군이다.

이 강철의 무장력은 오늘 소리높이 웨친다.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령도가 있고 위대한 인민이 있는 한 승리는 영원히 우리의것이라고.

리 현 민

67년전의 예심기록을 다시 펼치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지난 세기 50년대부터 오늘까지 우리에게서 된매를 맞고 녹아나기만 한것이 미제의 수치스러운 전통이라면 비대한 힘을 믿고 설쳐대는 미국을 걸음마다 통쾌하게 족쳐대기만 한것은 영웅조선의 자랑스러운 전통입니다.》

미국의 어느 한 비밀보고서에는 이렇게 씌여있다.

《지난 조선전쟁은 김일성장군의 전법에 의하여 미국이 패하고 미국의 명장들이 제일 많이 죽고 철직된 전쟁으로 특징지어진다.》

지난 조선전쟁에서 이처럼 비참했던 미제전쟁광신자들의 말로를 론할 때 조선사람 누구나가 상기하는 한 인물이 있다. 미24보병사단장이였던 윌리암 에프. 딘이다.

딘으로 말하면 제2차 세계대전시기 도이췰란트와 오스트리아에서 《혁혁한 전과》를 거둔 《장군》이였다. 미24보병사단은 조직된이래 조선전쟁전까지 110여차의 전투를 통해 《상승》을 뽐내여왔으며 미국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장군》들이 허다하게 배출된 사단이였다. 이런 미제의 《상승사단》과 그 사단장이 전쟁개시후 대전에서 어떤 수치를 당하였는가.

딘에 대한 당시의 예심기록을 다시 펼쳐보자.

《…

예심원: 포로된 경위를 말하라.

딘: 대전이 포위되면서 경비용차를 타고 남으로 가다가 인민군로병들이 쏜 포탄에 맞아 차가 전복되면서 운전사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나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30분정도 지나 정신을 차려보니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는 운전사의 군복을 갈아입고 낮에는 산에 숨어있다가 밤에만 산을 내려 도로를 따라갔습니다. 그러다 너무 배가 고파 감자밭에 내려가서 감자를 캐다가 집주인에게 발각되여 그의 신고로 인민군대에 포로되였습니다.

예심원: 사단장이 조직한 대전방어계획에 대하여 말하라.

딘: 금강을 비롯한 유리한 계선을 리용하여 대전을 중심으로 모든 병력을 4중으로 배치하였습니다. 그런데 삽시에 돌파당하였습니다. 조선인민군 지휘관들의 높은 지휘능력에 탄복합니다. 나는 인민군대가 중무기로 무장되였다는것을 몰랐습니다. 나는 대전전투는 조선사람이 조직한 작전이 아니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예심원: 딘, 똑똑히 기억하라. 일본제국주의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항복하였다.

딘: (머리를 숙이고 대답을 못하였다.)…》

조선과의 전쟁에서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아메리카제국의 산아 딘의 운명은 말그대로 조선사람의 본때앞에 벌벌 떠는 침략자, 패배자로서의 미제의 가련한 몰골이였다.

하다면 힘자랑 잘하는 미국이 왜 인민군대앞에서는 추풍락엽의 신세를 면치 못하였는가. 힘이 약해서가 아니였다.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참된 삶의 보금자리, 목숨보다 귀중한 조국을 지켜 한사람같이 떨쳐일어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사상정신적힘을 알지 못하였기때문이다.

바로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시기 《전승국 사단장》으로 득의양양해 활개치던 81kg의 체중을 가진 살인장군 딘이 36일간이나 집없은 들개처럼 산속을 방황하다가 58kg의 초췌한 몰골로 애어린 병사의 손에 포로가 되고 유럽의 전장과 필리핀, 일본을 돌아치던 미국의 《상승사단》에 무리가 《민청》호중기의 불바다질에 삼대처럼 쓰러졌으며 제 마음대로 지구의 곳곳을 마구 몰어뜯던 미제침략군 땅크가 녀병사가 내뿜는 증오의 눈빛앞에서 뒤걸음치지 않았던가.

그렇듯 원쑤들의 간담을 서늘케 했던 조선인민군이 오늘 백두령장의 공격기상과 탁월한 전략전술을 체현하고 최강의 핵타격수단까지 갖춘 무적필승의 정예대오로 더욱 튼튼히 자라났다.

지금도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5돐 경축광장을 보무당당히 행진해가던 열병대오의 발걸음소리가 귀가에 쟁쟁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건하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생을 다 바쳐 강군으로 키우시였으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진두에서 이끌고계시는 우리의 영용한 조선인민군, 이런 군대가 있어 우리의 배심은 든든하다.

하거늘 지금도 우리 공화국을 먹어보려고 날뛰고있는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에게 우리는 포로된 딘사단장에 대한 예심기록에 있는 한 대목을 다시 읽어주고 싶다.

《예심원: 전승국 사단장인데 정규군으로 개편된지 3년도 안되는 인민군대에게 패전한데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딘: 약한 군대가 강한 군대한테 지는것은 응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민군대에 그렇게 유능한 지휘관들이 있는지도 몰랐고 중무기로 무장한지도 몰랐습니다. 인민군대가 이렇게 발전하면 10년만 지나면 세계 1등급의 군대가 될것입니다.》

그때로부터 67년이 흘렀다. 아마도 딘이 살아있었더라면, 그더러 미군장성의 명예를 걸고 오늘의 반미대결전의 현실을 놓고 67년전의 자신의 예언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고 물었다면 그는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것인가?

우리는 확신한다. 승리는 영원히 조선의것이다!

본사기자 오 은 별

그들은 평양학원 졸업생들이였다

백두산혁명강군의 장구한 력사에서 해방직후는 그 초엽이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우리 혁명무력의 강화발전에서 분수령과도 같은 시기였다. 바로 그때에 나라의 첫 군사정치일군양성기지이며 군사정치일군양성의 모체기지인 평양학원이 창립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군사정치간부를 양성하는 사업을 정규무력건설의 모든 사업에 앞세우고 여기에 선차적인 힘을 넣었습니다.》

일찌기 군사정치간부육성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 조국건설로 그토록 분망하신 속에서도 평양학원창설을 발기하시고 학원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친히 학원의 리전을 잡아주신 그날은 력사적인 당창건위업을 실현하신 그날로부터 불과 30여일이 지난 주체34(1945)년 11월 17일이였다.

평양학원혁명사적기념비는 학원에 깃든 백두산3대장군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오늘도 가슴뜨겁게 전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모시고 평양학원 개원식에 참석하신 그날로부터 열여덟차례나 학원을 찾으시여 교직원, 학생들의 생활도 따뜻이 보살펴주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

위대한 장군님께서도 열일곱차례나 학원을 찾으시여 열병행진과 포사격, 비행훈련도 보아주시며 위대한 령장의 슬기를 키우시였다.

…

평양학원 졸업생들, 로동자, 농민의 아들딸들이였던 그들은 이런 사랑속에 우리 나라의 첫 군사정치간부양성기관을 졸업하였고 영웅적조선인민군 지휘관대렬에 당당히 들어섰다. 바로 이들이 미8군사령관 워커를 저승으로 보냈고 맥아더의 뺨을 보기 좋게 후려쳤으며 릿지웨이, 밴플리트에게 패전《장군》이라는 오명을 씌웠다.

어버이수령님의 품속에서 자라난 이런 지휘관들이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의 《장군》들과 맞서 전승을 안아왔다.

평양학원창립 70돐이 되는 뜻깊은 해에 조선인민군 제7차 군사교육일군대회가 소집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몸소 대회에 참석하시여 새 세기 군사교육혁명을 일으키는데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을 안겨주시였다.

또 한분의 친솔령장의 손길아래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우리 혁명무력의 지휘관들로 억세게 자라고있는것인가.

본사기자

천하제일명장을 모신 영웅적조선인민군은 언제나 불패의 백두산혁명강군으로 영광떨칠것이다. 본사기자 김 종 훈 찍음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재일동포자녀들에게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신 60돐기념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재일동포자녀들에게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신 60돐기념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가 4월 22일 도꾜에 있는 조선문화회관에서 진행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태양상이 대회장정면에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또한 공화국기를 배경으로 조선대학교와 도꾜조선중고급학교를 형상한 모형과 《주체46(1957)—주체106(2017)》의 글발이 걸려있었다.

대회장에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장군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민족교육의 대화원을 꽃피워주신 불멸의 령도업적을 길이 빛내이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웅근한혜의 투쟁으로 민족교육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자!》의 구호들이 나붙어있었다.

대회에는 허종만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과 남승우부의장, 배익주부의장, 배진구부의장 겸 사무총국장, 오민학부의장 겸 경제국장, 강추련부의장 겸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 홍인흠 총련중앙감사위원회 위원장, 구대석 재일본조선인교육회 회장, 장병태 조선대학교 학장, 박영식 조선대학교 리사장, 리정애 니시도꾜조선제2초중급학교 교장과 총련중앙 고문, 각 국장들, 재일조선인력사연구소 상임고문과 소장, 중앙단체, 사업체 책임일군들, 일본 각지의 학교소재지 총련본부위원장들, 교장들과 교육회 회장들, 간또지방의 총련일군들과 각급 학교 교원들, 각계층 동포들, 청년학생들이 참가하였다.

대회는 애국가의 주악으로 시작되였다.

대회에서는 허종만의장이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인류력사에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재일동포자녀들을 위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의 장장 60년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재일동포들과 땟으신 뜨거운 정과 혈연의 력사를 상징하는 사랑의 대서사시이며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뜻을 그대로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재일동포들에 대한 하해같은 은덕의 력사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조국해방을 한없는 기쁨으로 맞이한 애국1세들이 동포사는 곳곳에 국어강습소를 내오고 동포자녀들에게 우리 말과 글을 배워주는것으로부터 시작된 민족교육사업이 어버이수령님께서 제시하여주신 독창적인 로선관철방침에 따라 주체의 해외교포조직인 총련이 결성된 때로부터 곧바로 궤도를 걷게 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당시 절대다수의 동포들은 자녀들을 훌륭한 조선사람으로 키우려는 지향은 높았으나 막대한 돈이 소요되는 학교를 운영하자니 어간 힘들지 않았으며 우리 학교 교사라고는 대부분이 판자집이였고 때묻과 종이도 구하기가 매우 힘든 형편이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민족교육이 커다란 애로와 난관에 부딪치고 갖은 시련을 겪고있었던 때인 주체46(1957)년 4월 19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재일동포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세기적숙망을 헤아리시여 막대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시는 사랑과 배려를 베풀어주시였다고 격찬하였다.

참혹한 전쟁의 피해를 가시는 전후복구건설의 그 어려운 시기에 어버이수령님께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시였다는 감격적인 소식에 접한 재일동포들은 남녀로소 할것없이 서로 부둥켜 안고 《김일성장군만세!》를 목청껏 부르고 또 불렀으며 수령님께서 계시는 조국을 우러러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또 흘렸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의 력사에는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사랑과 전설처럼 전해지는 가슴뜨거운 사연이 깃들어있다고 하면서 이로 하여 1959년 6월 조선대학교 새 교사가 훌륭히 일떠섰고 학비가 없어 배우는 길을 단념했던 수많은 대학생들이 배움의 길을 되찾게 되였다고 피력하였다.

참으로 어버이수령님께서 보내주신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이 생명수가 되여 일본땅에 민족교육의 대화원이 펼쳐지게 되였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또한 총련의 민족교육발전사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그대로 이어받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불멸의 로고와 사랑이 가슴뜨겁게 어려있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가 총련에 교육원조비를 보내는것은 총련동포자녀들에 대한 수령님의 사랑의 마음을 보내는것이라고 하시며 총련의 후대들을 키우는 일이면 나라의 재부를 다 보내주고싶다고, 총련에 보내는 교육원조비라면 아까울것이 없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고 하면서 그는 이런 불보다 뜨거운 사랑이 있기에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그 준엄한 시기에도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은 중단없이 와닿게 되였다고 성송하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돌려주신 재일동포자녀들에 대한 사랑의 력사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에 의하여 변함없이 이어지고있다고 그는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승리에로 이끄시는 그치렴 바쁘신 속에서도 재일동포자녀들을 한시도 잊지 않으시고 막대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해마다 보내주고 계시니 그 사랑의 크기와 은혜의 고마움을 말과 글로 다 표현할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탄생 105돐에 즈음하여 남강도 미제의 무모한 침략소동으로 조선반도에 일촉즉발의 위기가 조성된 엄혹한 정세속에서도 위대한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께서 재일동포들에게 돌려주신 사랑의 력사가 한치의 드팀도 없이 흐르도록 막대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시였다고 그는 격찬하였다.

그는 총련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이 세계해외교포교육의 본보기로 자랑떨칠수 있은것은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와 육친적인 사랑의 고귀한 결실이며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자랑중의 자랑, 가장 귀중한 재부이라고 말하였다.

60년의 년륜을 새긴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의 혜택속에 자라난 우리 학교졸업생들은 총련애족애국위업의 역군으로, 조국의 륭성번영과 평화통일을 위해 활동하는 어엿한 민족인재로 자라나 활약하고있다고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멀리 떨어져사는 자식을 더 걱정하는 친어버이심정으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해마다 보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충정으로 보답하는것은 우리 총련일군들과 동포들이 지닌 량심이며 도덕의리이라고 강조하였다.

지금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천재적인 예지와 비범한 령도력, 강철의 의지와 담력으로 미제와의 최후대결전과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정력적으로 령도하시며 주체위업의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재일조선인운동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현명하게 이끌어주고 계신다고 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들은 주체위업과 총련애국위업의 승리는 과학이라는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승리에로 내달리는 조국과 더불어 총련의 위용, 민족교육의 우월성과 정당성을 더 높이 떨쳐나갈것이다.

총련 각급 조직과 학교들에서 재일조선인운동의 생명선인 민족교육사업에 새겨진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의 력사를 길이 전하며 선대들의 뜻을 이어 민족교육을 끝까지 고수하고 발전시켜나갈것이다.

총련의 교육일군들은 절세위인들의 믿음을 길이 새기고 재일조선인운동의 생명선을 맡은 영예로 항상 가슴 불태우며 그 어떤 어려움도 꿋꿋이 이겨내고 후대교육의 중대한 사명과 임무를 책임적으로 다하여야 할것이다.

그는 내외반동들과의 치렬한 대결전이 벌어지고 일본의 정치경제적환경이 그 어느때보다 험악한 오늘과 같은 상황에서 총련의 전 조직과 학교들이 애족애국운동의 생명선을 끝까지 지켜낸다는 각오로 학생, 원아인입사업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총련본부를 비롯한 각급 조직과 단체, 사업체들이 민족교육사업은 총련의 존망과 애국위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재일조선인운동의 생명선이며 천하지대본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각급 학교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며 전 기관적인 대책을 세워 학교교원들의 사업과 생활조건을 잘 보장해주어야 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총련의 각급 조직과 단체들은 《학교사랑 한구운동》에 관하 일군들과 청상회 성원들을 비롯한 새 세대 열성자들, 각계각층의 동포들을 광범히 망라하며 다양한 학교지원운동을 전동포적인 운동으로 힘있게 벌리는 한편 동포들의 단합된 힘으로 민족교육권을 옹호확대하고 일본당국의 부당한 민족교육차별책동을 단죄하는 국제적여론을 환기해나가야 할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의 혜택속에서 학업과 연구활동을 벌리고있는 류학생들과 과학자들이 첨단돌파전으로 우리 식의 과학기술강국, 문명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거창한 투쟁을 벌리고있는 조국의 과학자들처럼 학문탐구와 연구사업에 힘을 넣어 사회주의강국건설에 투색있게 기여해나가야 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모두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첫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신 60돐을 맞이한 뜻깊은 올해 대오의 일심단결과 과감한 투쟁으로 민족교육사업을 고수발전시켜나가는데서 기어이 전환을 일으켜나가자고 호소하였다.

대회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드리는 편지가 랑독되였다.

대회는 《김일성장군의 노래》의 합창으로 끝났다.

재일조선학생들의 예술공연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재일동포자녀들에게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신 60돐기념 재일조선학생들의 예술공연 《조국의 사랑은 따사로워라》가 22일 도꾜에 있는 조선문화회관에서 진행되였다.

허종만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과 남승우부의장, 배익주부의장, 배진구부의장 겸 사무총국장, 오민학부의장 겸 경제국장, 강추련부의장 겸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 홍인흠 총련중앙감사위원회 위원장, 총련중앙 고문, 각 국장들, 재일조선인력사연구소 상임고문과 소장, 중앙단체, 사업체 책임일군들, 일본 각지의 학교소재지 총련본부위원장들, 교장들과 교육회 회장들, 간또지방의 총련일군들과 각계 설레였다.

동포들, 청년학생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끝임없이 보내주시는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은 재일동포자녀들만이 맡아안은 영광이고 긍지라는것을 시랑송과 록화편집물로 형상한 《사랑의 생명수》로 공연은 시작되였다.

조선대학교 학생들이 출연하는 합창 《조국의 사랑은 따사로워라》와 도꾜조선중고급학교 학생들의 녀중창 《잊지를 말아라》가 무대에 오르자 장내는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감사의 정으로 뜨거워졌다.

요꼬하마조선초급학교 학생들의 합창 《버스를 타고 전차를 타고》와 사이다마조선초중급학교 학생들의 무용 《어느쪽일가요?》, 니시도꾜조선제1초중급학교 학생들의 민족기악중주 《왕호박》은 민족교육의 화원에서 마음껏 배우며 자라는 재일동포자녀들의 기쁨과 자랑을 생동하게 펼쳐보이였다.

남독창 《내가 나서 처음 배운 노래》에 출연한 지바조선초중급학교 학생은 민족교육의 꽃대문에 들어서서 처음으로 배운 노래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이고 우리 학생들은 이 노래를 부르며 참된 조선사람으로 준비해나가고있음을 격조높이 구가하였다.

지난해 조선대학교창립 60돐에 즈음하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보내주신 력사적인 축하문을 받아안은 무한한 긍지와 영예를 가슴에 안고 주체의 한길, 애족애국의 천만리를 충직하게 이어나갈 조선대학교 학생들의 결의를 담은 설화와 중창 《우리를 보시라》, 무용 《응해야》는 재일조선학생들의 튼튼한 모습을 잘 보여주었다.

도꾜조선중고급학교 학생들이 출연하는 합창 《우리는 조선의 아들딸이다》는 백두에서 개척된 혁명전통과 반만년의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배우며 애족애국의 계주봉을 억세게 이어나갈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였다.

결의설화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따뜻한 사랑과 현명한 령도, 갈 굳은 결심을 가다듬었다.

총련중앙사진전시회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재일동포자녀들에게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신 60돐기념 총련중앙사진전시회가 22일 도꾜에 있는 조선문화회관에서 진행되였다.

전시회장에는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은인이시며 재일동포자녀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민족교육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온갖 배려를 다 돌려주신 은혜로운 사랑의 력사를 담은 사진문헌들이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받들어 친어버이사랑과 락월한 령도로 민족교육발전의 새로운 전성기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혁명활동을 수록한 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었다.

허종만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과 남승우부의장, 배익주부의장, 배진구부의장 겸 사무총국장, 오민학부의장 겸 경제국장, 강추련부의장 겸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 홍인흠 총련중앙감사위원회 위원장, 총련중앙 고문, 각 국장들, 재일조선인력사연구소 상임고문과 소장, 중앙단체, 사업체 책임일군들, 학교소재지 총련본부위원장들, 각급 학교 교장들과 교원들, 간또지방의 총련일군들, 각계층 동포들과 청년학생들이 전시회장을 돌아보았다.

참관자들은 이 세상 가장 숭고한 사랑으로 총련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을 세계해외교포교육의 본보기로 빛내여주신 절세위인들의 자애로운 영상을 우러르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락월한 령도따라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애국유산이며 재일조선인운동의 생명선인 민족교육사업을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갈 굳은 결의를 가다듬었다.

【조선중앙통신】

조선인민군창건 85돐경축

우표 발행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85돐을 맞으며 국가우표발행국에서 새 우표(개별우표 1종)를 창작하여 내놓았다.

우표의 웃부분에는 《조선인민군창건 85돐》, 《1932》, 《2017》이라는 글발이 새겨져있다.

펄펄 휘날리는 반일인민유격대기발과 조선인민군 군기를 배경으로 우리 식의 위력한 첨단무장장비들을 형상한 우표는 주체형의 첫 혁명적무장력인 조선인민혁명군이 창건된 때로부터 장장 85성상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령도밑에 백전백승의 력사와 빛나는 전통을 창조해온 불패의 혁명강군의 영광스러운 전투적행로를 직관적으로 보여주고있다.

대를 이어 장군복, 최고사령관복을 누리며 백승을 떨쳐온 조선인민군의 영웅적위훈을 긍지높이 되새겨보게 하는 우표는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우러 혁명무력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여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은 반드시 실현될것이라는 확신을 안겨주고있다.

우리 나라의 신철벌선수 2017년 아시아력기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쟁취

우리 나라의 신철벌선수가 2017년 아시아력기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뚜르크메니스딴에서 진행되고있는 이번 력기선수권대회에는 우리 나라와 웰남, 타이를 비롯한 29개 나라와 지역의 남, 녀선수들 150여명이 참가하였다.

금메달로 조국의 영예를 빛내일 의지를 안고 남자 62㎏급경기에 출전한 신철벌선수는 추켜올리기에서 1위, 끌어올리기에서 2위를 함으로써 종합 1등을 하고 금메달 2개와 은메달 1개를 쟁취하였다.

태양절경축 재일본조선인축하단이 떠나갔다

권순위 총련중앙상임위원회 고문을 단장으로 하는 태양절경축 재일본조선인축하단이 24일 평양을 떠나갔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김영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진국 해외동포사업국 국장, 관계부문 일군들이 전송하였다.

타이에 갔던 우리 나라 대표단 귀국

박명국 외무성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우리 나라 대표단이 타이에서 진행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지속개발촉진을 위한 경제협력 및 통합에 관한 고위급대화에 참가하고 24일 비행기로 귀국하였다.

에죠트 오라스콤전기통신수단 및 기술주식회사 리사장 귀국

나기브 싸위리쓰 에죠트 오라스콤전기통신수단 및 기술주식회사 리사장이 24일 귀국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박명철 체신성 부상이 전송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만리마의 무쇠발굽으로 미제의 무모한 전쟁 도발책동을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릴것이다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대변인담화

위대한 병진의 기치밑에 전진하는 우리 공화국의 도도한 진군에 전전긍긍하는 미국이 날이 갈수록 날강도의 본색을 공공연히 드러내놓고 북침전쟁광기에 더욱 미쳐날뛰고있다.

최근 미국의 새 행정부가 《최고의 압박과 개입》을 대조선정책으로 확정하고 《칼빈손》호핵항공모함타격단을 비롯한 방대한 핵전략무력을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들이밀면서 무모한 전쟁소동을 일으키고있는것은 그 뚜렷한 증거이다.

미국의 허장성세에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기가 죽었던 괴뢰보수패당도 때를 만난듯이 련일 호전적이며 도발적인 망발을 줴쳐대며 상전의 북침핵전쟁도발책동에 키질을 해대고있다.

공화국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짓밟고 우리들이 창조한 모든 귀중한 재부들을 강탈하려는 원쑤들의 횡포무도한 군사적위협과 공갈은 지금 전체 로동계급의 분노와 격분을 활화산처럼 폭발시키고있다.

우리 로동계급은 《선제타격》이니 뭐니 하며 신성한 우리 조국땅에 핵전쟁의 검은구름을 몰아오는 미제와 괴뢰호전광들의 무분별한 망동을 로동계급의 세상, 사회주의 우리 제도의 위력에 질겁한 패배자들의 카소로운 몸부림으로밖에 보지 않는다.

미국이 군사적위협공갈과 고립봉쇄, 제재압박의 도수를 높이는것으로 우리 로동계급과 인민을 놀래울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망상은 없다.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쑤인 미제와 천하의 역적무리인 동족대결광신자들은 우리 로동계급의 가슴마다에서 쇠몽치처럼 끓어번지는 적개심과 초강경대응의지를 똑바로 보아야 한다.

주먹이 약하면 그 주먹으로 자기의 피는물을 닦아야 하기에 사랑앞이 없이도 살수 있지만 총알이 없이는 살수 없다는 철리를 뼈에 새겨안고 허리띠를 조이면서도 전화의 군자리정신으로 강위력한 최첨단무장장비들, 우리 식의 혜타격수단들을 만들어내며 선군혁명의 병기창을 억척같이 다져온 우리 로동계급이다.

이 행성의 절대병기 수소탄을 비롯하여 정밀화, 경량화, 무인화, 지능화된 우리 식의 첨단무장장비들을 마음먹은대로 만들어 백두산혁명강군의 군력강화에 이바지한 우리 로동계급은 우리 조국이 웅축하고있는 힘이 그 얼마나 무진막강한것이며 우리 군대가 일단 징벌의 불을 뿜을 때 원쑤들의 운명이 어떻게 끝장날것인가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있다.

침략자, 도발자들이 핵항공모함이요, 스텔스전투기요 뭐요 하는것들을 끌어다놓고 그 누구를 감히 위협해보려고 아무리 으르렁거려도 한갖 미친개무리의 발작증에 불과하다.

원쑤들의 그 어떤 제재압살과 봉쇄책동도 자력자강으로 강성을 떨쳐가는 우리에게는 절대로 통할수 없다.

그것은 하늘을 치솟고 솟구쳐오른 려명거리와 해빛 따사로운 우리 조국땅 어디서나 랑랑히 울려퍼지는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가 웅변으로 보여주고있다.

미국과 그 주구들은 백번 죽었다가 되살아난대도 이 땅의 눈부신 기적과 전변을 안아온 우리 로동계급의 불굴의 정신력, 그 모든것을 자기의 목숨처럼 지켜나가는 우리의 신념과 의지를 도저히 리해할수 없을것이다.

창조와 건설을 보람으로 여기는 조선로동계급은 누구보다도 존엄과 평화를 더없이 사랑하기에 결코 침략자들이 강요하는 전쟁을 두려워하거나 피하려 하지도 않는다.

침략의 무리가 덤벼든다면 억척같이 다져온 선군의 철리로 단때에 짓뭉개버리고 조선로동계급의 영웅적기상과 본때를 힘있게 과시하자는것이 우리의 단호한 기개이고 억척의 의지이다.

혁명의 수뇌부결사옹위는 우리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제일생명이며 자랑스러운 전통이다.

방대한 《특수작전》무력을 투입하여 무엄하게도 우리의 《수뇌부제거》를 노린 《참수작전》에 발광하는 미국은 설사 다른 나라들에서는 그따위 놀음이 통할지 몰라도 로동계급을 비롯한 천만군민이 혁명의 수뇌부를 사수하여 천겹만겹의 방탄벽을 이루고있는 이 땅에서는 어림도 없다는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하늘의 태양에 대고 감히 삿대질을 하는 극악무도한 혁명의 원쑤들은 우리 로동계급의 무지비한 징벌의 철추앞에서 가장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다.

만일 미제와 남조선괴뢰호전광들이 무모한 도발을 걸어온다면 즉시적인 징벌타격전의 선두에서 인민군대와 함께 우리 로동계급은 철의 대군단이 되여 최후승리를 위한 결사전에 용약 떨쳐나설것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감히 공화국의 문전에서 불장난질을 해대는 하루강아지들을 모조리 쇠장대로 쳐여 펄펄 끓는 전기로에 처넣을것이며 핵항공모함이든, 핵전략폭격기이든 침략의 살인장비들을 편편짝으로 만들어 파철무지속에 처박아버릴것이다.

한손에는 총을, 다른 한손에는 마치를 들고 조국번영과 사회주의수호전에서 주력군의 용맹을 떨쳐온것은 세기를 이어오는 우리 로동계급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다.

우리 로동계급은 자강력제일주의의 기치높이 만리마속도로 힘차게 내달려 원쑤들의 눈깔이 뒤집히도록, 배가 아파나도록 이 땅우에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인민의 제일락원, 전면적으로 발전된 사회주의강국을 보란듯이 일떠세움으로써 미제와 그 추종세력의 비렬한 제재압박과 봉쇄책동을 산산이 짓부셔버릴것이다.

침략자, 도발자들은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한다.

백두산대국의 영웅적로동계급은 정의의 핵보검, 만리마의 무쇠발굽으로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횡포무도한 북침핵전쟁도발과 제재압박책동을 짓밟아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릴것이다.

주체106(2017)년 4월 24일
평 양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특색있는 료리

‖ 서성구역종합식당 장경국수집에서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민족음식을 적극 장려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국수맛이 좋고 록두지짐을 잘하기로 소문이 난 서성구역종합식당 장경국수집이 요즘은 특색있는 미꾸라지료리로 사람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봉사원들의 친절한 안내도 좋지만 《추어탕 한그릇 더 주십시오.》 하며 음식을 청하는 손님들의 모습은 식당에 들어서는 우리들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였다. 때는 점심참이라 식당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있었는데 탑을 철철 흘리며 맛있게 음식을 드는 손님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였다.

《이 식당의 추어탕맛이 기가 막힙니다. 미꾸라지의 약효에 대해서는 알고있었지만 이렇게 맛이 좋은줄은 이 식당에서 알게 됐수다. 그래서 이곳을 자주 찾아오군 한다오.》라고 한 로인이 말하는데 《전 이전엔 미꾸라지는 보기만 해도 심리를 뒤군 하였는데 이 식당에서 만든 미꾸라지료리를 먹어본 다음부터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저도 그 료리기술을 배워 남편과 아이들에게 대접하려고 합니다.》라고 곁에 있던 한 중년부인이 말을 이었다.

손님들이 많은것을 보니 식당의 료리수준이 정말 높은것 같다는 우리의 말에 책임자 강은화동무는 이렇게 말했다.

《미꾸라지는 그 약효와 영양가가 높아 민물인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미꾸라지로 여러가지 료리들을 싱싱껏 만들어 봉사하고있는데 손님들이 정말 좋아하고있습니다. 이제 다 문화를 더욱 향상시킬데 대한 당의 의도를 알게 되였다.

강은화동무는 현행봉사에만 만족하면 자기의 사업을 심각히 돌이켜보았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봉사성은 접촉 사람들을 친근하고 례절바르게 대하는 것만이 아니며 인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아글타글 노력하는데서 나타나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지 않았는가.)

미꾸라지료리를 비롯한 민족음식을 장려할데 대한 당정책의 생활력이 아니겠습니까.》

크지 않은 자그마한 식당이지만 울려나오는 목소리는 컸다.

몇해전 어느날 이곳 봉사자들은 영양가높은 미꾸라지료리를 발전시켜 우리 인민들의 식생활문화를 더욱 향상시킬데 대한 당의 의도를 알게 되였다.

강은화동무는 현행봉사에만 만족하면 자기의 사업을 심각히 돌이켜보았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봉사성은 접촉 사람들을 친근하고 례절바르게 대하는 것만이 아니며 인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아글타글 노력하는데서 나타나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지 않았는가.)

여러가지 미꾸라지료리를 손님들에게 봉사하려는 그의 결심은 모든 종업원들의 한결같은 지지를 받았다.

미꾸라지료리를 보장하자면 원자재를 마련하는 문제부터 해결하여야 하였다.

이들은 대담하게 자체의 힘으로 미꾸라지서식장을 꾸리는 일에 달라붙었다. 녀인들의 힘으로 번듯하게 일떠세운 미꾸라지서식장을 돌아본 사람들은 누구나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이렇게 꾸려진 서식장에 놓아줄 종자미꾸라지를 구하기 위해 그들이 걸은 발걸은 그 얼마이고 미꾸라지양식에 필요한 과학기술지식들을 습득하기 위해 과학연구기관들과 인민대학습당으로 달려가며 흘린 땀은 또 얼마이던가.

그들의 이악한 노력은 마침내 풍성한 열매로 맺어졌다.

추어탕을 비롯한 여러가지 미꾸라지료리들을 매일 정상적으로 봉사할수 있는 수백㎏의 양식능력이 조성되고 끊임없는 탐구와 열정으로 그 료리기술도 나날이 높아졌다. 그 나날 책임자 강은화동무와 료리사 김명심동무는 전국적인 료리경연들에서 우승의 영예도 여러번 쟁취하였다.

강은화동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에서 하라는대로만 했을뿐입니다. 인민들이 좋아할 때 우리 봉사자들의 보람과 영예가 더 빛나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장경국수집에 대한 취재에서 우리는 다시금 새삼스럽게 새겨안았다.

당정책관철에 인민의 기쁨과 행복이 있다는것을.

본사기자

천하무적의 최정예강군을 키우신 불멸의 업적

주체조선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5돐을 맞으며 전군사에 특기할 사상 최대규모의 열병식, 우리 식의 새롭고 특색있는 열병식이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성스러운 군기를 태오앞에 휘날리며 군악에 맞추어 경축의 광장을 힘차게 누벼나가는 무적필승의 최정예전투대오, 금시라도 적진을 짓뭉개고 멸적의 불소나기를 퍼부을것만 같은 무쇠철마들, 원쑤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는 《북극성》탄도탄을 비롯한 위력한 전략무기들과 은빛날개를 번쩍이며 상공을 날아예는 하늘의 검사대들…

현대적인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다 갖춘 우리 인민군대의 무진막강한 위력, 적들의 그 어떤 전쟁방식에도 다 상대해줄수 있는 강대한 힘과 첨단군사기술을 소유한 백두산혁명강군의 불패의 기상앞에 세계가 경탄을 금치 못하고있다.

그 어떤 대적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무적필승의 조선인민군!

얼마나 믿음직하고 강위력한 혁명무력인가. 생각해볼수록 마음이 든든해지고 누구나 한없는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으로 가슴설레이게 하는 백두산혁명강군이다.

그럴수록 우리 인민들의 가슴마다에는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주체적혁명무력의 강화발전을 위해 온갖 로고를 바쳐오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군건설업적이 뜨겁게 안겨온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위대한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군력강화에 계속 큰 힘을 넣어 조국의 안전과 나라의 자주권을 믿음직하게 지키며 지역의 안정과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는데 기여하여야 합니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에게 강한 군대가 없고 위력한 군수공업이 없다면 세계《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는 미제의 강경자세에 초강경자세로 맞서지 못할것이라고, 우리는 강한 군대를 가지고있고 위력한 군수공업이 있기때문에 배심이 든든하여 큰소리를 치는것이라고, 우리는 온갖 로고를 바치시여 강위력한 군대와 군수공업을 마련해주신 수령님의 업적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뜻깊은 교시를 하시였다.

돌이켜보면 군력이 약한탓에 일제에게 짓밟히고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강요당해야 했던 우리 인민이였다.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면서도 자기를 지킬 힘이 없어 사대와 망국을 숙명처럼 감수해야만 하였던 약소민족이 바로 한세기전 우리 민족의 비참한 모습이였다.

바로 이러한 인민의 운명을 구원해주시고 우리 조국을 빛내여주신분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이시다.

일찌기 총대이자 민족의 생명이고 혁명의 승리이라는 철리를 밝히시고 지금으로부터 85년전 백두밀림에서 인민의 우수한 아들딸들로 주체형의 첫 혁명적무장력인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신 위대한 수령님, 해방후 그처럼 어려운 조건에서도 지체없이 자립적국방공업의 기초를 다지고 우리 군대를 혁명적정규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신 수령님의 그 탁월한 업적을 무슨 말로 다 칭송할수 있으랴.

그이께서 우리 혁명무력의 강화발전을 위해 바쳐오신 끝없는 로고와 심혈이 있었기에 정규군으로 개편된지 얼마 안되는 조선인민군은 수적, 기술적우세를 믿고 덤벼드는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을 물리치고 조국해방전쟁의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으며 전후에도 내외호전광들의 광란적인 북침전쟁도발책동을 짓부시며 백전백승의 전통을 끊임없이 이어올수 있었다.

우리 혁명무력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탁월한 선군정치에 의하여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더욱 억세게 자라났다.

사랑하는 병사들을 찾아 우리 장군님 헤쳐가신 선군혁명령도의 길은 그 얼마나 험난했던가. 그 길에는 우리가 언제 순풍에 돛을 달고다닌 일이 있는가고 하시며 사나운 풍랑을 헤치시며 찾아주신 섬초소도 있고 위험천만한 판문점과 1211고지도 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헌신적인 선군혁명령도에 의하여 오늘 우리 인민군대는 사상과 신념의 강군으로, 그 어떤 강적도 타승할수 있는 무적의 최정예대오로 그 위용을 온 누리에 떨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국주의반동들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이 계속되고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속에서도 우리 혁명무력을 현대적인 타격수단과 방어수단을 다 갖춘 필승의 강군으로 꾸리시기 위하여 자위적국방공업을 최우선적으로 발전시키도록 하신것은 그이께서 조국과 인민앞에 쌓으신 불멸의 공적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0돐을 맞으며 개관된 조선인민군무장장비관에는 어버이수령님께서 닦아주신 자위적국방공업의 기초우에 현대적인 국방공업의 새로운 성새를 쌓아올리신 위대한 장군님의 빛나는 업적이 뚜렷이 아로새겨져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의 뜻과 유훈을 받들어 선군혁명령도의 길을 줄기차게 이어가시였기에 우리 인민군대는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수호하고 전대미문의 반미대결전에서 현전현승할수 있었으며 우리 조국은 세계적인 군사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설수 있었다.

하기에 남조선의 한 력사학자는 자기의 론문에서 이렇게 썼다.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전쟁사를 연구하는 나도 이북에 대해서, 국력의 중추라 할수 있는 인민군에 대해서, 그 군의 최고령수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을수 없었다.

용맹과 지략, 명군술을 훌륭히 겸비한 령장은 그 어떤 강적도 능히 제압하고 타승하는 법이다. 오늘 이북의 인민군이 필승의 무적강군으로서의 위용을 떨치고있는것은 그 생동한 사례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슬하에서 창건되고 강화발전되여온 혁명적무장력의 성스러운 력사는 또 한분의 절세의 위인을 높이 모시여 더욱 빛나고있다.

수령님께서 걸으시였고 장군님께서 헤치시였던 선군혁명의 그 길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가 꼭 가야 할 길이다. 나는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한평생 걷고 걸으신 선군혁명의 길을 끝까지 이어나갈것이다. …

이런 철석의 의지를 안으시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수놓아가신 선군혁명령도사는 백두산혁명강군의 최전성기가 어떻게 펼쳐지게 되였고 군력강화의 새 경지가 어떻게 마련되게 되였는가를 그대로 전하고있다.

우리 혁명무력의 무진막강한 위력앞에 혼비백산한 적들은 천둥에 떠는 잠충이들처럼 어쩔바를 몰라하고있다. 북침전쟁열에 들뜬 미제와 괴뢰군부불한당들이 그 무슨 《정밀타격》이니, 《응징》이니 하면서 불까불고있지만 정신적불구자, 오합지졸에 불과한 침략군, 고용병무리는 우리의 상대로 될수 없다.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우리 인민군대는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을 감히 건드리려고 미쳐날뛰는 원쑤들을 단매에 쓸어눕힐 멸적의 기세로 끓어번지고있다.

만일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이 어리석은 망상에 사로잡혀 함부로 덤벼든다면 우리 인민군대는 선군의 기치밑에 다지고다져온 군사적위력을 총폭발시켜 원쑤들을 씨도 없이 격멸소탕하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반드시 성취하고야말것이다.

백두의 선군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신 우리 군대와 인민은 영원히 승리와 영광만을 떨칠것이다.

본사기자 라 설 하

총련 금강보험주식회사창립 40돐
기념모임 진행

총련 금강보험주식회사창립 40돐 기념모임이 18일 도꾜에서 진행되였다.

허종만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 오민학부의장 겸 경제국장, 강추련부의장 겸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 장병태 조선대학교 학장, 김중환 금강보험주식회사 사장과 성원들, 중앙단체, 사업체 책임일군들, 총련 본부위원장들을 비롯한 일군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허종만의장이 축하발언을 하였다.

그는 금강보험주식회사의 40년력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와 극진한 사랑과 배려의 력사이라고 말하였다.

금강보험주식회사의 창립이후 동포들은 일본사람과 꼭같이 보험에 가입하게 되였으며 회사는 경영을 잘하여 조국의 통성번영과 총련의 애족애국운동, 민족교육사업발전에 특색있게 이바지하여왔다고 그는 지적하였다.

그는 금강보험주식회사가 총련의 경제단체로서 지난 40년동안 일본경제가 침체되고 보험업계의 경쟁이 심화되는 어려운 조건과 환경속에서도 동포들을 위한 각종 운동을 때 시기마다 참신하게 벌려 계약자대렬을 부단히 확대해온데 대해 언급하였다.

회사가 동포들의 보험적수요를 충족시키는 민족보험기관의 면모를 갖춘데 대해 그는 높이 평가하였다.

그는 금강보험주식회사가 모든 사업에서 동포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고 창립 50년, 60년을 향하여 동포들의 보험적권리와 리익을 위해 더 잘 복무해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김중환사장이 사업보고를 하였다.

그는 금강보험주식회사가 《모든 일군들이 동포들속에 깊이 들어가 사업하자!》라는 구호를 들고 동포들의 보험적권리와 리익을 지키기 위한 특색있는 활동을 벌려온데 대하여 말하였다.

금강보험주식회사가 오늘 일본방방곡곡에 보험거점을 꾸리고 보험일군들이 동포들속에 깊이 들어가 사업하는 등 일본에서도 권위있는 보험대리점의 면모를 갖추었다고 그는 밝혔다.

그는 회사창립 40돐을 계기로 보험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드리는 편지가 랑독되였다.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가
잡지 《통일》 특간호와 2017년 4월호를 발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탄생 105돐에 즈음하여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가 월간사회정치잡지 《통일》 특간호 《4.15—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태양절, 주체시대의 105년》과 2017년 4월호를 발행하였다.

특간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을 정중히 모시였다.

또한 위대한 수령님의 빛나는 혁명생애를 년대별로 수록한 사진문헌들과 영상미술작품들을 정중히 모시였으며 어버이수령님의 혁명활동력력과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제1권의 주요내용들을 편집하였다.

특간호는 로씨야사람이 창작한 시 《두자루의 권총》에 대한 이야기》를 실었다.

잡지 2017년 4월호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사진문헌들을 정중히 모시고 그이께서 지난 3월 완공단계에 이른 려명거리건설장을 또다시 현지지도하시고 새로 개발한 우리 식의 대출력발동기지상분출시험을 보아주신 소식, 새로 개건된 조선혁명박물관을 현지지도하신 소식, 《조선인민군 땅크병경기대회—2017》을 지도하신 소식을 집중편집하였다.

조선반도정세와 관련하여 미국무장관이 일본, 남조선을 행각하면서 우리를 압박하기 위해 책동한 사실과 우리 외무성대변인이 우리 나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목적으로 일본이 간첩위성을 발사한것과 관련하여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준 대답,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합동군사연습을 규탄하여 유엔주재 우리 나라 상임대표가 유엔사무총장에게 보낸 전지, 조선인민군총참모부 대변인경고, 남조선괴뢰들이 강제유인랍치한 우리 공민들을 하루속히 돌려보낼것을 요구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대변인담화 등을 잡지는 소개하였다.

그밖에 잡지는 동포소식과 문화소식들을 편집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전쟁부나비들의 어리석은 객기

북침아망에 들든 괴뢰군부깡패들이 불인지 불인지 모르고 미쳐날뛰고있다.

얼마전 괴뢰국방부는 다음해부터 5년동안 추진할 《2018—2022 국방중기계획》이라는것을 발표한데 이어 오는 10월 륙군동원전력사령부를 창설하겠다고 공표하였다. 한편 미제호전광들과 함께 지난 14일부터 각종 전투기들과 병력을 투입하여 《덱스 썬더》련합공중전투훈련을 벌려놓았다. 이것은 괴뢰들의 북침전쟁광기가 도를 넘고있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개꼬리 삼년 두어도 황모 못된다고 외세와 야합하여 우리 공화국을 해치려는 괴뢰역적패당의 악습은 절대로 면할수 없다.

괴뢰군부가 미국과 함께 우리를 겨냥한 도발적인 망동을 뻔질나게 벌려놓고있는 기본목적은 북침선제공격기도에 맞게 전반적인 전쟁준비를 최종완성하자는데 있다. 《3축타격체계》를 조기에 구축하는것이 《2018—2022 국방중기계획》의 골자를 이루고있는것도 그것을 말해주고있다.

괴뢰들이 운운하는 《3축타격체계》라는것은 그 누구의 《도발징후》가 있을 경우 1단계에서 《킬 체인》으로 선제타격을 가하고 2단계에서는 미싸일방어체계를 가동시키며 3단계에서는 모든 미싸일들과 특수작전부대를 총투입하여 《대량응징보복작전계획》에 따라 《강력응징》하는것을 내용으로 하고있다.

보다싶이 《3축타격체계》는 그 누구의 《도발징후》를 구실로 내대며 북침선제공격기도를 실현하기 위한것이다. 이것을 괴뢰호전광들은 《북의 핵, 미싸일위협대비》를 떠벌이며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구축하기로 하였다. 또한 《3축타격체계》의 구축을 위한 정찰위성과 탄도탄조기경보레이다 등 각종 최신전쟁장비들의 구입에 막대한 혈세를 탕진하기로 하였다.

현실은 괴뢰호전광들이 《북의 핵, 미싸일위협》을 떠들며 북침선제타격흉계를 실현하기 위해 미쳐날뛰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괴뢰군부가 내오려 하는 륙군동원전력사령부라는것도 북침전쟁에 대비한것이다. 괴뢰호전광들은 륙군동원전력사령부를 조작함으로써 숱한 예비군부력을 통일적으로 장악통솔하여 북침전쟁에 내몰려 하고있다.

남조선괴뢰들이 미제침략군과 함께 광란적으로 감행하고있는 《맥스 썬더》련합공중전투훈련은 우리 공화국을 선제타격하기 위한 전형적인 공격훈련으로서 가뜩이나 첨예한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더한층 격화시키고있다. 지금 내외호전광들은 수많은 전투기들을 동원하여 공중전훈련과 《정밀타격》훈련 등을 감행하면서 국도의 전쟁열을 고취하고있다.

괴뢰호전광들이 《국방중기계획》을 비롯한 각종 도발적인 계획들을 발표하면서 미국과 야합하여 《덱스 썬더》련합공중전투훈련을 벌리고있는것은 하루강아지 범무서운줄 모르는 격의 가소로운 망동으로서 천하를 뒤흔들고 대륙과 대양을 휘어잡는 백두산대국의 무진막강한 군사적위력에 얼혼이 나간자들의 단말마적발악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공화국은 동방의 핵강국, 아시아의 로케트맹주국이다. 위대한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의 주체적혁무력건설에서는 눈부신 사변들이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일어나고있다. 얼마전 태양절경축 열병식광장에 출현한 우리 식의 위력한 로케트종대들에 대한 평가와 분석으로 내외여론이 즉가마끓듯 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사고가 정지되고 판단이 우매하면 제손으로 제눈을 찌르게 되는 법이다.

괴뢰역적패당이 미국을 등에 업고 우리를 어째보겠다고 객기를 부리고있지만 그것은 부질없는 놀음이다. 고도로 소형화, 정밀화, 다종화된 핵타격수단들을 갖춘 무적의 백두산혁명강군에 맞서보겠다는것은 작두날에 목을 들이미는것과 같은 미련한짓일뿐이다.

등불에 날아드는 부나비들의 운명이란 불에 타죽는것밖에 없다.

괴뢰군부깡패들은 연평도의 불바다를 잊지 말아야 한다. 괴뢰들이 완전파멸을 바라지 않는다면 무모한 모험에 매달리지 말고 분별있게 처신하는것이 좋을것이다.

괴뢰들로서는 우리의 경고를 명심하고 자중자숙하는것만이 격노한 우리 군대의 무자비한 불세례를 피할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심 철 영

최후의 승리는 결사의 각오로 반미대결전에 떨쳐나선 조선인민의것이다
재중조선인청년련합회 위원장 담화 발표

김영녀 재중조선인청년련합회 위원장이 12일 《최후의 승리는 결사의 각오로 반미대결전에 떨쳐나선 조선인민의것이다》라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하였다.

담화는 미제호전광들이 조선반도수역에 핵항공모함타격단을 또다시 들이밀면서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있는것은 전체 재중동포청년들의 치솟는 분노를 불러일으키고있다고 규탄하였다.

3월초부터 각종 침략전쟁연습소동을 벌리면서 온 남조선땅에 핵먹지바람을 일으키던 미제침략자들은 온갖 꽃이 만발하는 내 조국땅의 정화로운 봄하늘에 기어코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려고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다고 하면서 담화는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재중조선인청년련합회는 어리석게도 《힘에 의한 정화》를 부르짖으며 조선반도지역에 핵전략타격수단들을 줄줄이 들이밀어 우리 공화국을 어째보려하는 승냥이 미제를 가장 큰 분노와 복수의 증오심을 담아 준렬히 단죄한다.

미국놈들이 감히 《선제공격》이니, 《참수작전》이니 하면서 군사적선택을 입에 올리고있는것은 참으로 가소롭기 그지없다.

우리 공화국은 미국놈들이 심심하면 두들겨패는 저 멀리 중동의 약소국도 아니며 조선인민은 전쟁의 참화를 피해 뿔뿔이 흩어지는 불행한 피난민대렬은 더욱 아니다.

우리 공화국은 최세의 전술핵장을 높이 모시고 최강의 핵무력을 갖춘 동방의 군사대국이며 조선인민은 령도자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반미최후대결전을 벼르고벼려온지 너무나도 오래다.

철부지어린이로부터 머리흰 로인에 이르기까지 전체 조선인민은 미국놈들과는 기어이 끝장을 보고야말겠다는 결사의 각오로 피끓이며 복수의 기회만을 기다리고있다.

우리 재중조선인청년들도 원쑤 미제에 대한 쌓이고쌓인 분노를 총폭발시켜 사랑하는 조국의 인민들과 생사운명을 같이하며 반미결전의 제일선에 달려나갈 결의로 심장을 불태우고있다.

미국놈들이 감히 우리 공화국을 건드린다면 그 즉시에 해외청년돌격대를 무어 제일 선참으로 달려나가 놈들의 사등뼈를 가슴후련히 분질러놓겠다는것이 재중조선인청년들의 결사의 의지이다.

장구한 인류력사는 전쟁의 승리는 그 어떤 만능의 무기가 아니라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굳게 믿고 결사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는 정의로운 인민의것이라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미국은 전체 조선인민과 온겨레의 드높은 반미대결의지를 똑바로 보고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하며 침략무력을 걷어가지고 남조선에서 하루빨리 물러가야 한다.

최후의 승리는 결사의 각오로 반미대결전에 떨쳐나선 조선인민의것이다.

남조선강점 미군
《싸드》배치지에 중장비 반입

남조선인터네트신문 《서울의 소리》에 의하면 20일 미제침략군이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에 《싸드》배치를 위한 장비들을 반입하였다.

이날 새벽 미군은 현지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두려워 앞도로가 아닌 일반자동차가 겨우 다닐수 있는 뒤쪽의 농촌길로 도적고양이처럼 장비들을 이동시키였다.

수십명의 주민들이 막아나서자 파쑈경찰이 그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 과정에 2명의 주민이 심하게 다쳐 쓰러지고 그중 1명은 병원으로 실려갔다.

《싸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는 괴뢰국방부와 미군의 《싸드》배치장비반입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항의투쟁을 벌리고있다.

초불정신으로 국민주권시대를 열어나갈것을 주장

남조선인터네트신문 《자주시보》에 의하면 남조선의 4월혁명회, 민주로총, 진보련대를 비롯한 단체들이 4.19인민봉기 57돐을 맞으며 19일 4.19용사들의 묘앞에서 추모식을 진행하였다.

추모식참가자들은 초불정신으로 자주, 민주, 통일의 국민주권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가자고 호소하였다. 그들은 이번 초불혁명은 박정희의 쿠데타로 짓밟힌 4월혁명이 무참한것으로서 민심을 거스르는 《정권》은 이 땅에 존재할수 없다는 진실을 확인하였다고 언명하였다.

친일과청산에 실패하고 독재《정권》을 거치며 수십년동안 쌓인 악폐를 청산하여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것이 초불시민들의 요구라고 그들은 주장하였다.

그들은 지금의 권력구조를 해체하지 않으면 또 다른 박근혜가 출현할 우려가 크다고 성토하였다.

초불민심을 받들어 민주사회를 건설하는것이 시대의 요구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악폐청산과 사회개혁을 위해 초불은 계속 타올라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일본군성노예범죄의 진상을 폭로하는 문서 또다시 발견

17일 남조선 《련합뉴스》에 의하면 일본군성노예범죄의 진상을 폭로하는 문서가 또다시 발견되였다.

일본 도꾜의 국립공문서관이 정부의 내각관방에 제출한 문서에는 일본해군의 인도네시아륙전경찰대 전 대장이 전후 일본법무성관계자에게 《200명정도의 부녀를 위안부로 군부의 명령에 따라 말리섬에 데리고 들어갔다. 》고 말한 내용이 기록되여있다.

또한 《다수의 부녀가 란폭한 수단으로 위협과 강요를 당했다. 》고 판결된 내용도 들어있다.

새로 밝혀진 문서와 관련하여 도꾜대학의 한 교수는 《군이 강제로 위안부로 동원하였음을 명확히 보여주고있다. 》고 주장하였다.

일본정부는 일본군성노예범죄의 진상을 폭로하는 문건이 수백건이나 폭로되였지만 군인이 성노예를 강요하여 유죄판결을 받은것은 알고있다, 개별자료의 평가는 하지 않고있다, 전체로 보면 강제련행을 직접 보여주는 기술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는 등 파렴치한 주장을 계속하고있다.

일본의 학계와 시민단체들은 《이번에 확인된 공문서에는 점령지에서 벌어진 다수 사례에 대해 구체적인 상황이 적혀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기존의 견해를 바꾸지 않았다. 정부는 〈강제련행을 직접 보여주는 기술〉이라는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 》, 《아베정권은 휘것을 검은것이라고 바꾸어 말하고있다. 》고 비난하였다.

일본반동들이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을 무시한 일방적인 성노예문제《합의》, 소녀상철거책동 등으로 과거 성노예범죄를 덮어버리려고 획책하지만 죄악의 진상은 계속 밝혀지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악의 화근은 송두리채 들어내야 한다

중국의 신화망을 비롯한 여러 나라 언론들이 남조선에서 엄중한 환경오염문제를 산생시킨 미군의 범죄적만행을 폭로하였다.

그에 의하면 남조선강점 미군기지들에서 지난 25년동안 각종 기름류출오염사고가 수많이 발생하였다. 외신들은 얼마전에 남조선의 여러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에 있는 룡산미군기지에 의한 환경오염문제를 까밝힌데 대해서도 전하였다. 지금 남조선강점 미군기지주변의 지하수독성물질은 허용기준수치의 몇십, 몇백배에 달한다고 한다.

남조선의 환경부가 서울 룡산미군기지내 지하수오염조사를 벌린 결과에 의하더라도 벤졸이 허용기준수치의 160배를 초과한것으로 나타났다.

벤졸은 위험한 발암성물질로서 장기간 인체내에 흡수되면 어지러움과 머리아픔, 기절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며 백혈병 등과 같은 각종 질병과 암이 발생하게 된다. 고농도의 벤졸을 흡수하면 생명까지 잃게 된다.

이번에 드러난 사실자료들은 미국이 남조선인민들의 생명안전같은것은 안중에도 없으며 남조선땅을 한갖 저들의 오물장, 유독성물질처리터로밖에 여기지 않는다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룡산미군기지오염문제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동두천을 비롯하여 미제침략군이 둥지를 틀고있는 남조선의 미군사기지들과 그 주변지역이 폐유와 각종 화학물질, 중금속 등에 의해 오염될대로 오염되였다. 뿐만아니라 미제침략군은 고엽제를 비롯한 독해물까지 내버려 강토를 극도로 오염시켰으며 1972년에는 사고가 난 핵탄두까지 남조선내에서 몰래 폐기처리하는것도 서슴지 않았다.

엄중성은 미군이 둥지를 튼 기지의 오염 그자체에만 있는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농토와 산, 강하천과 바다까지 못쓰게 만든다는데 있다.

남조선의 정력과 군산, 하남의 논밭들이 미군사기지에서 마구 내보낸 많은 량의 기름과 오염물질들로 하여 쓸 한모기도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불모지로 되였다. 한강, 림진강 등을 비롯한 미군기지주변의 강하천 역시 먹는물로 리용할수 없게 된지 오래며 이 지역의 오염된 지하수를 마신 주민들은 암을 비롯한 각종 질병에 걸려 죽어가고있다. 미제야말로 남조선인민들의 생존권을 엄중히 위협과피하는 야만이라고밖에 달리 볼수 없다.

미국의 반인륜성과 타민족멸시정책은 이처럼 악랄하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미국이 남조선괴뢰들을 강박하여 사람들의 건강과 생태환경에도 커다란 부정적영향을 미치는 《싸드》까지 남조선땅에 끌어들이고있는것이다.

《싸드》로 말하면 강력한 전자기파와 발동기평음 등으로 하여 미군부에서조차 《치명적인 결함을 가진 무기체계》로 평가되고있다.

미군이 괌도에 《싸드》를 배치하면서 내놓은 환경영향보고서에도 《100m내에서는 전자기파로 인해 심한 화상이나 내장파렬을 일으킬수 있다. 》는 내용이 들어있으며 《싸드》를 다루었던 미군사병들조차 《발전기의 평음이 작은 마을전체를 덮어버릴 정도이다. 그 지역에서 살수 있는 생물체는 돼지뿐이다. 》라고 실토하였겠는가.

남조선당국자들이야말로 제손으로 제눈을 찌르는 머저리짓만 골라하는 특등매국노, 현대판노예들이다.

승미사상에 환장한 친미분자들은 미국을 하내비처럼 섬기면서 제 동족의 목숨같은것은 안중에도 두지 않고있다.

어론들은 미강점군의 이러한 만행들이 남조선에서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있는것은 철저한 주종관계에서나 있을수 있는 일이라고 일치하게 평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마치 저들이 남조선의 그 무슨 《진실한 우방국》, 《굳건한 동맹자》, 《인권의 수호자》나 되는듯이 미화분식하면서 《싸드》배비책동에 광분하고있다.

남조선강점 미군은 남조선인민들의 《해방자》, 《보호자》가 아니라 온갖 불행과 고통을 들씌우는 침략군, 강점군이며 극악한 인권유린범죄집단이다.

미국이 제아무리 감언리설을 다 늘어놓아도 이 땅에 남긴 침략군의 극악한 범죄의 력사는 영원히 지울수도 가리울수도 없다.

오늘 조선반도에서 환경파괴와 전쟁발발을 막고 조선민족의 생명안전을 보장하는 길은 하루속히 미군을 남조선에서 몰아내는것뿐이다.

미국은 남조선에서 치외법권적으로 주인행세를 하며 돌아칠것이 아니라 저들의 살인장비들을 몽땅 걷어가지고 제 소굴로 돌아가야 한다.

라 명 성

애국심을 발휘할것을 호소

짐바브웨대통령 로버트 지. 무가베가 18일 독립절기념행사에서 연설하면서 전민이 애국심을 발휘하여 경제발전을 추동해나갈것을 호소하였다.

독립이후 정부가 사회경제정책과 경제발전계획들을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해 분투하고있는데 대해 언급하면서 그는 앞으로 계속 노력하여 나라의 독립과 주권을 더욱 공고히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종교와 종족, 정견의 차이를 초월하여 나라의 발전을 위해 단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미국은 전쟁범죄의 주동분자라고 단죄

이란국방 및 무력병참상이 19일 자기 나라를 겉고는 미국의 부당한 처사를 규탄하였다.

최근 미국방장관이 이란이 예멘의 반정부그루빠에 미싸일을 제공해준다고 비난한것과 관련하여 그는 예멘인민은 자체의 힘으로 침략자들과 맞서싸우고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무고한 예멘인들을 대상으로 극악한 전쟁범죄를 감행하는 주동분자는 바로 미국이라고 까밝히면서 예멘에서의 류혈참극을 하루빨리 끝장내야 한다고 말하였다.

말디브의 해안가

고대무덤 발굴

에짚트의 룩소르시에서 최근 고대무덤이 발굴되였다.

18일 이 나라 정부가 밝힌데 의하면 도시의 서부지역에 위치한 무덤은 B. C. 1500-B. C. 1000년시기의것으로 추측되며 그속에서 1 000여개의 조각상들과 10개의 돌관들이 발견되였다.

무덤은 나라의 고대력사를 연구하는데 도움을 주게 될것이라 한다.

【조선중앙통신】

ㄱ-710647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등록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편집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